금주의 기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으로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19년 6월 29일 (토) 제 1736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VOA, 독립기념일 특집보도 통해 미국 힘의 근원 밝히고 미래에도 이어지길 바래

오늘날 미국을 지구촌에서 초강대국으로 만든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토, 천혜의 자연환경, 안정된 정치제도와 탄탄한 경제력, 역시 세 번째로 많은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만 꼽으라면 독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미국의 건국이념, 바로 미합중국은 꿈을 쫓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 또 자원봉사와 기부문화로 대표되는 청교도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유명 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 역시 미국은 정치, 군사, 외교,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인도 등 신흥 강국들과의 무역 전쟁(?), 또 냉전 시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 저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불거지고 있는 백인우월주의 논란과 반이민정책 등에 따라,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영향력 또는 국제 경찰로서의 입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 독립기념일 243주년을 맞아 과연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미국의 소리(VOA)" 독립기념일 특집 보도를 통해 알아본다.

미국 동북부 뉴욕 항에는 미국의 독립을 기념해 세워진 자유의 상(The Statue of Liberty)이 있다. 자유의 상은 그 옛날, 자유와 행복을 찾아 몇날 며칠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내디뎠던 초기 이민자들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미국의 건국이 유럽에서 억압받아온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스스로 일구어낸 것을 의미한다면 자유의 상은 자유와 기회를 찾아 이 땅을 밟은 이민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든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온 아메리카, 미국!

피부색도, 문화도, 종교도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보다 발전해 나가는 나라, 그 것이 바로 미국이고, 보이지 않는 미국의 힘,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였던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인들은 나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늘 온갖 종류의 단체를 조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크빌은 이처럼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소수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시민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토크빌이 관찰한 미국의 이 같은 특징은 1백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까이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부터 지역 도서관이나 병원, 소방서, 나아가 전국적인 차원의 협회나 정당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은 수없이 많은 단체를 조직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 자원봉사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의용 소방대원들은 미국의 자원봉사 정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1백10만 소방대원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터프츠 대학교에서 미국 외교사를 가르치는 알랜 헨릭슨 교수에 따르면, 지금의 미국을 만든 원동력, 즉 개방된 사회에 대한 의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만 살아있으면 미국은 계속 위대한 나라로 남을 수 있다:

"제 생각에 미국은 강대국으로서보다, 하나의 사회, 위대한 사회로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미국은 경제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계급이나 종교,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굉장히 개방된 사회이고, 최소한 개방된 사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그 같은 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초강대국으로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건 점점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고 효과도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 자유기업, 무료교육, 새로운 생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3면으로 계속〉

성경번역, 복음전하고 소멸위기 언어도 구한다!

CT, 국제 성경번역단체들 통계 통해 모국어 보존 성경번역사역 소개

성경번역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의 언어(heart language)"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있다.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모국어(mother tongue)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 신학 개념들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성경 말씀과 더욱 깊은 정서적 유대를 이룰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성경번역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보존해 소멸위기에 있는 언어들을 구해내고 있다(Bible Translation Projects Are Preserving Endangered Languages:While the world loses a language every 40 days, translation efforts bring new life to threatened tongues).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마음의 언어' 성경번역 프로젝트(heart language translations)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속해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언어로 신앙에 이르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 자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앤디 키너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의 글로벌 파트너십 부대표는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읽고, 자기네 언어로 기도하고, 자기네 언어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걸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성경번역팀이 활동하는 모든 대륙에서 그들은 성경번역 프로젝트-처음으로 알파벳을 만들 때도 있고, 처음으로 그 언어로 된 문서를 만들 때도 있다-가 언어 자체의 궤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성경번역에는 언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특히 성경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렇다. 의미지도 그리기(semantic mapping), 맞춤법, 은유, 언어 표준화(language standardization) 같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해당 언어 공동체의 최고의 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6면으로 계속〉

3면
시 론
은희곤 목사

7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14면
소망 광야 쉼터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수료중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ever 우표 (평생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2019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2"×2") 2매
❻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❶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❷ 입 학 시 험 : 2019년 8월 3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❸ 개 강 부흥회 : 2019년 9월 3일(화)-5일(목) 저녁 8시
❹ 수 업 기 간 : 2019년 9월 3일(화)-11월 29일(금)
❺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718)637-147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 성 국 박사

● 발행인 칼럼 ●

은혜의 강가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6월 23일 한국 춘천의 축구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대 사건(?)이 있었다. 강원팀이 포항팀에게 0:4로 지고 있다가 후반에 5골을 연달아 넣음으로 5:4로 대역전승을 일으켰다. 보기 드문 광경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그 경기내용을 보도하였다고 한다. 운동의 묘미뿐 아니라 삶의 묘미도 역전에 있다. 역전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에 달려 있다. 그 시간에 적절히 쉬면서 전반전을 다시 돌아보고 후반전을 새롭게 할 전략을 짜는 시간이다.

승리는 쉼 없이 빨리 달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올해도 6개월이 되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진할 것이다. 지난 6개월이 아쉽든 만족하든 누구에게나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6개월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운동에는 최종 숫자가 중요하지만 삶에는 마지막까지 남다른 수치(數値)를 보여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삶에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역전이다.

내가 살고 있는 뉴욕의 맨해튼을 바라볼 때 한동안 나의 관점은 그 건물의 높이였다. 그 다음에 외적 화려함이었다. 그런 나의 관점이 바뀐 계기가 있었다. LA에서 오신 분과 함께 맨해튼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을 간적이 있었다. 그 때 장로님 한 분이 동행했는데 장로님이 맨해튼 안의 좁은 거리와 낮은 건물들을 지나면서 그 거리와 그 건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때부터 내게 맨해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높이와 화려함이 아니라 크던 작던 그 건물,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나의 관점이 역전이 된 것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가면서 얻게 된 것이다. 그동안 맨해튼 길은 대부분 병원 또는 교우들의 사업장 심방이었다. 달리는 기관차같이 질주하던 사역에서 짧지만 한 걸음 쉼의 시간으로 맨해튼 길에 나서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라는 자리를 주셨다. 열 둘 샘, 일흔 그루의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잠시 쉬고 다시 힘을 얻어 걸으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후반전을 무엇인가 역전의 시간으로 맞으려면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엘림이 필요하다. 퇴각(退却) 그러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리트릿(retreat)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도 필요한 것이다. 이 여름 은혜의 강가로 가보시지 않겠는가? 은혜의 강가로 가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소중한 것임에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현재의 나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그림을 다시 보고 후반전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격동(激動)의 전반전을 살아내느라 피곤하고 지친 자들의 후반 대역전극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은 하프타임, 엘림, 곧 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강가에서 갈한 목을 축이는 것에 있다. 어떻든 쉼의 하프타임을 만들어 나지막이 이 복음찬송을 부르면서 오늘의 엘림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겠는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

[알림] 본지 정기휴간에 따라 7월 6일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VBS 연중행사 중 가장 선호하는 행사 되게!

처치리더스.컴, 어린이사역전문 드웨인 라이너 목사의 여름성경학교 12가지 팁 소개

여름성경학교(VBS)와 어린이 캠프, 스포츠 캠프는 엄청난 방법으로 공동체에 다가가지만, 이런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름 행사가 잘 치러지기 위해서 땀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여름에 여름성경학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간단히 답하면 '그렇다'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지금 당장 성공적인 여름성경학교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벌써 VBS를 마친 교회들도 있고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고 있는 이민교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VBS를 교회 연중행사 중 온 교인들이 참여하며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드웨인 라이너(Dwayne Riner, Ark Church 주일학교 담당목회자,http://www.thearkchurch.com/) 목사의 조언들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너 목사는 20년 동안 어린이 목회자로, 여름성경학교 행사와 어린이 캠프를 자주 이끌었다. 그는 고백하기를 여러 해 동안 이런 행사는 잘 됐지만 특별할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때 접근 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고 그가 섬겼던 한 교회의 여름성경학교 학생수가 80명에서 300명을 넘었다. 실제로 여름성경학교 예배가 2년 연속 부활절 출석률을 넘어섰다. 결국 여름성경학교는 교회 연중행사 중 가장 선호하는 행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라이너 목사의 "여름성경학교를 눈에 띄게 해야 하는" 12가지 조언들을 소개한다(12 Tips to Supercharge Your VBS).

여름성경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안 올 수밖에 없다. 수십에서 수백 개가 넘는 교회가 여름 행사를 치루는 지역 도시에서 어떻게 눈에 띄겠는가? 그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조언 1: 광고 우편물이 효과를 낸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정한 이웃을 목표로, 특히나 교회에서 가까운 많은 가정에, 광고 우편물을 이용했다. 전체 우편은 특정한 지방 무료 우편배달로, 비용을 안 들일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온라인 등록을 제공해야 가정에서는 카드를 받자마자 등록할 수 있다.

조언 2: 교환권을 증정해야 한다.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지역 월마트 무료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 성인이나, 아동, 직장인 누구나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광고지를 달라고 하면 주고 심지어 그 자리에는 등록 용지도 있었다. 이는 조건 없는 선물이었다.

조언 3: 광고를 확실히 해야 한다. 미리 만들어놓은 업체 현수막을 쓰지 말아야 한다. 길에서 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크고 굵은 글씨체로, 눈에 잘 띄는 배경의 현수막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읽히기 쉽게 종종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씨체를 사용했다. 가끔은 기능이 디자인을 이길 때가 있다. 팻말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

조언 4: SNS 이용해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그 외 SNS 광고에 내야 한다. 부모들이 공유하기 쉬운 그림이나 동영상을 새로운 게시물로 사용해야 한다. 입소문도 내야 한다. 입소문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조언 5: 봉사할 곳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두가 다 집단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정말 잘 된 일이다. 따라서 등록, 간식준비, 영접, 심부름 봉사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자.

과거 필자가 어린이 목회자로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주일에 평균 약 325명이 출석했는데, 여름성경학교의 봉사자를 100명 넘게 모집했다.

조언 6: 친구들을 모집하게끔 봉사자를 독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과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이는 정말 멋진 일이다. 함께 섬기게 되면 봉사자수가 느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언 7: SNS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봉사자를 모집해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게 하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할수록, 말이 더 퍼져나갈 것이다. 여름성경학교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게 해야 한다.

조언 8: 소통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 봉사자와 잘 소통하고 훈련시켜 모든 사정을 알게 해야 한다. 이들이 자신감이 없으면 분열될 것이다. 행사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팀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색다른 광고...봉사와 섬김이 최우선 순위 되도록 온 교회가 참여하며, 부모가 함께 하는 예배 준비

첫 등록하고 온라인에 게시하는 10명에게 무료 티셔츠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교회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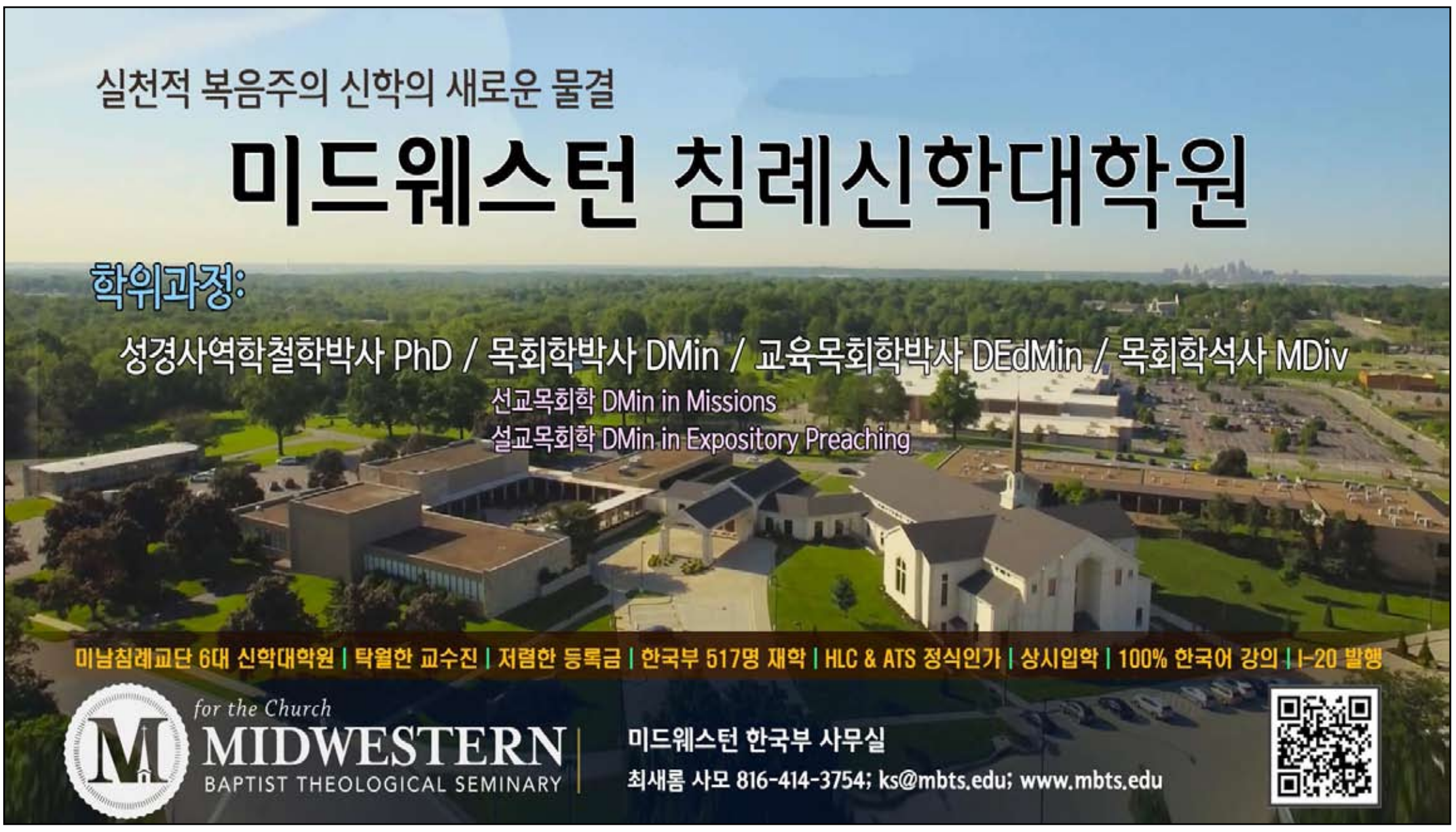
여름성경학교는 단순히 현재 어린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만이 관계된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있고 싶은 장소로 만들었다. 시기를 놓치면 실패하는 것이다.

또한, 목회자는 목회의 비전에 힘을 주고 이로 인해 성도가 기쁘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행사가 정말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곳이 돼서 봉사대기 목록을 만들어야 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섬기기 위해 휴가까지 냈다.

우리 여름 성경 학교 가족 예배는 주일의 최고봉이다. 우리는 연중 어느 다른 주일보다 여름 성경 학교 이전 주일에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방문하게 했다. 이로 인해 부모는 교회를 보게 되고, 여러 가정과 강한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 성 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1면에서 계속〉

서포크 대학교의 로버트 앨리슨 교수 역시 개방된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미국을 강하게 만든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건 바로 개방된 사회입니다.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영하는 사회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기 훨씬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미국은 또 유럽의 식민 지배를 종식시킨 나라입니다.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해 스스로 필리핀을 독립시켰고, 또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식민지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고 면에서도 개방된 사회라고 앨리슨 교수는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생각을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미국을 강하게 만든 요인이고, 앞으로도 강조해야 할 점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인들의 공동체 의식 역시 미국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앨리슨 교수는 설명한다:

"시민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사회의 일부란 거죠. 지역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말입니다. 이웃 주민들을 알고 지내고 서로 도우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한다, 다른 사람이 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서서 하는 것, 소년 단원이든 볼링 모임이든 정당이든,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과 협조해서 뭔가를 조직하는 것… 바로 미국을 강하게 만든 요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미국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미국이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한다.

바로 이러한 사상적 기조가 바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독립선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있다(요약):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그리하여 통치체제의 정당한 권력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메리카연합 각 주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모든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당연히 그러한 국가가 돼야 한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결국 미 건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 취임 연설(1789)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설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미국 국민에게 연방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형태에 관해 완벽한 평온의 상태에서 숙고할 기회와 유례없는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 심성을 즐거이 허락하셨기에 이 정부의 성공을 가름할 드넓은 전망, 절도 있는 협의 및 현명한 법안들에도 신성한 축복이 똑같이 뚜렷하기를 빕니다."

VBS 연중행사 중 가장 선호하는 행사 되게!

〈2면에서 계속〉

현재 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 대신에 어린이 캠프를 제공했지만, 부모와 동역자 관계를 맺고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가족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조언 9: 온 가족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장년 예배를 보기 위해서 초대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기획하고, 기획하더라도 본당에서 드려야 한다. 장식을 더 잘하고, 예배 동안 여름성경학교용 음악을 깔고, 한 주 동안 알게 된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필자가 섬기는 현재 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 대신에, 어린이 캠프를 제공했지만 금요일 밤을 최고로 만들었다. 이것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한 주를 엿볼 수 있고, 부모와 동역해 자녀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 가도록 할 수 있다.

조언 10: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람들이 출석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여름성경학교나 어린이 캠프 예배에 드라마를 가장 큰 부분으로 만드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반드시 드라마를 마지막 모임의 말미 결말 직전에 끝내도록 한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다면, 가족 예배에 오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이 예배는 일년 중 가장 최고의 예배가 돼야 한다.

조언 11: 무엇인가 주어야 한다. 필자는 가족 예배에 큰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와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모든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 실리콘 팔찌, 로고가 그려진 선글라스나 티셔츠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구하려고 여름성경학교 업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말 비쌀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섬기는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언 12: 담임목사를 빛나게 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예배 설교 기회를 꼭 가져야 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담임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최소 인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꼭두각시 인형극이나 여름성경학교 예배에 등장인물로 출연시킨다. 중요한 것은 방문객이 목사와 소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여름성경학교나 어린이 캠프가 아마도 일년 중 최우선 봉사활동이 될 것처럼 보인다. 모든 여름성경학교나 어린이 캠프를 중요하게 만들어라. 이런 조언을 이용하는 것이 교회 여름행사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 론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지난 5월에 제가 감독으로 섬기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한국의 세월호 합창단을 초청해 '미주순회공연'을 가졌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3차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부로 불리는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40년전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넙숙 저에게 세월호합창단 미주순회공연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기습을 하셔서 얼떨결에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화정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그러나 세월호 침몰 중 먼저 구조되어 살 수 있었는데 자기 친구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희생된 "예은이", 예은이는 박인환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안산 화정교회 박은희 전도사님의 딸입니다. 어릴 적부터 지켜본 예은이 때문이었을까... 박 목사님은 지난 5년간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들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런 박 목사님의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랴 싶어 LA, SF, NY, 캐나다 토론토 4번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며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주최가 되지 말고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는 세사모(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세사모 모임들은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서 애당초 계획한 합창단 15명이 점점 불어나더니 30명이 순회공연에 참가하게 되서 조금 힘은 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더 컸습니다.

LA는 예수마을감리교회, SF는 산호세 웨스트민스터장로교회, NY은 퀸즈칼리지 강당, 토론토는 요크 시청홀에서 각기 공연을 가졌고, 각 지역마다 버스킹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세사모들을 만나는 유익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전 일정을 동행하신 한 분 목사님 그리고 순회공연 일정 중 각 지역에서 참여하신 15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세월호 합창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일은 보수적인 이민사회나 이민교회들에게 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건 말건, 보수건 진보건을 다 떠나서, 정말 우리들이 바라보고 공감해야 하는 부분은 "활짝 펴보지도 못한 채 꽃다운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나의 딸들, 나의 아들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가슴에 품고 사는 엄마, 아빠들의 그 마음입니다. 엄마 아빠들의 가슴은 바로 이 어린 딸들을 묻은 묘지였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런 참사를 당하고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찌하실건지요? 그래서 이들은 터진 가슴을 안고 외쳐 '노래'합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내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노래'합니다.

이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같이 가슴으로 울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래'합니다.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정말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래'합니다. 자기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곳을 찾아다니며 '노래'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 중에 있더라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에 품고 살수밖에 없는 그들보다는 덜 고통스럽기에 그들의 '노래'가 위로가 되고 그들의 '노래'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기에 그들은 '노래'합니다. 뉴욕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라운드 제로를 너무나 한참동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시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장을 만들려고 하기에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그라운드 제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같이 껴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며, 누구도 차별 당하지 않는 억울함이 없는 세상, 즉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도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 세상을 더 이상 암흑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빛의 사명. 어느덧 우리들은 교회부흥과 성장신화 속에 갇혀 이 사명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문해봅니다. 물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도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과 같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에 길들여진 상호비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뤄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마땅한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보며, 한번 생각하고 싶어 적어봅니다.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아빠, 파이팅!!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것을 항상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에 가서 놀아라"고 하면 산에 가서 놀았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자신이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후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시냇물에 떠내려갈 것을 염려하여 '개굴개굴'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들 개구리가 말썽꾸러기 청개구리로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하느라 바빠서 아들 곁에 없었을까요? 그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아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혹시 청개구리의 문제가 아버지의 부재 때문은 아닐까요? 저자는 왜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빠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가족들도, 자녀들도 몰라줍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된 후에도, 딸만 키웠던 저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종종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는 아버지의 부재와 위기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빠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점점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자녀교육의 3요소가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말 만큼 아버지들에게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빠는 마음이 힘듭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며 구박을 받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만 모르는 것 같고 매사에 가족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점점 약병이 늘어가는 것도,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친척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녀들,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사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많은 아버지도 존경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생명이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존경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미움을 대물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미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좋은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인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효심이 지극한 자녀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존경이 존경을, 공경이 공경을 낳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자녀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퍼더스데이(Father's Day)를 보냈습니다. 무뚝뚝한 아빠, 사랑 표현이 서툰 아빠, 잔소리만 많은 아빠.... 그러나 매일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아빠, 자존심이 상해도 끝까지 참는 아빠.... 그들이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존경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절기를 지내며 온 가족이 아버지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빠, 파이팅"을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빌립보서 1장 27-2장 18절

종종 운전하다보면 빨리 달리고 싶고 달릴 수 있으나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 규칙대로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만약 고속도로에 차선 표식이 없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봅니다. 없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달려오는 차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빨리 달릴 수 없듯이 기준이 없다면 제대로 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 나갈 것 같지만 어디에서 어느 차가 달려들어 올지 알 수가 없으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며 그리스도에 의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소 사시며 보여주셨던 그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가 사셨던 생활입니다. 이제부터 네 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1:27-30).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으로 살되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게 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이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하며 사는 것은 합당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그 자세는 멸망과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굳게 서서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거나 혼자 앞에서 앞선다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교회는 영적인 전쟁에 앞장서기는 했으나 한마음으로 협력함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복음과 일치된 성도는 일치된 마음으로 복음과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어 축복 되는 고난을 이길 승리를 확신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의 신앙으로 같이 싸워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보조를 맞추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생활을 추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확고히 서는 것이 복음에 보조를 맞춘 자세입니다.

같은 뜻으로 협동하며 걸어가는 것이 복음에 보조를 맞춘 자세입니다. 복음에 보조를 맞추는 성도는 또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생활을 보여줍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보조를 맞춘 생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성도는 그 자체가 승리의 증거이며 적들에게는 패배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대적하는 자를 인해 두려워 아니할 때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생활은 믿는 축복과 더불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은 믿음과 더불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모두에게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2. 하나 됨을 위해서 살라(2:1-4).

본문에서 보듯이 성도들은 하나 됨을 위해서 위로부터 주어진 자원들을 이용하여 남을 앞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격려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안으로 흘러나오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하나 됨을 추구하면서 남을 먼저 내세워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라는 의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와 자매를 존중히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겸손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교회 초기부터 복음 사역에 힘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다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교회의 문제는 다툼이었습니다.

외적 문제가 다툼이라면 내적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보듯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허영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이기적인 마음을 떠나 남을 낫게 여겨야 합니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입니다.

3.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읍시다(2:5-11).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겸손은 배우고 또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권을 갖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 됨인 특권과 영광 그리고 위치까지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가진 누릴 수 있는 것도 형제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며 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종으로 오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비우셔서 고통 받는 형제의 위치로 완전히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최고의 겸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겸손함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극치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과는 지극히 높아지신 그분의 이름과 위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희생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겸손함으로 뛰어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명성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명성은 권리나 강탈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고 순종의 비하, 겸손의 모습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거절하셨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만물이 다 굴복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사람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인데 그들은 각각 천사, 사람, 음부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임에도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의 높임 안에 있는 모든 칭찬, 명예, 힘을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를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4. 구원을 이루어 기뻐합시다(2:12-18).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복종을 하셨으므로 그를 따라 우리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권면을 하려고 할 때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기초 작업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들은 바울이 권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복종입니다. 복종에는 들음의 결과로서 복종하는 것으로 굴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종이 부족하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를 좋아했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여 당파까지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이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복종이 필요합니다. 복종은 한순간에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삶에 존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교회에 없을 때 더욱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겸손을 실습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한 정신적인 염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원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어느 순간에 이단자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 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항상 순종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소원을 넣어주시고 능력을 제공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그 결과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교회의 연합과 성숙입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겸손하게 화합해야 합니다. 투덜거림이 없는 공동체는 탁월한 증인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비난받을 것이 없는 상태이며 순전하여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진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세대는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흠 없고 순전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타락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 찬란히 빛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오히려 밝은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빛을 나타낸다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빛을 발산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 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있는 세상을 향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므로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인한 공적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의 성취에 대한 자랑입니다. 사역자의 특권입니다. 끝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헌신은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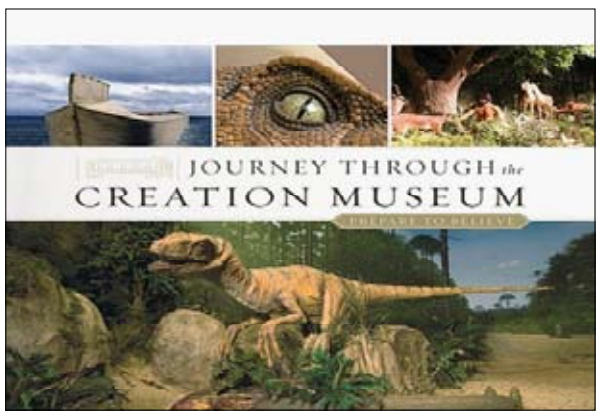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자녀들에게 올바른 창조과학을 가르친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17년 켄터키 주에 있는 캔함(Ken Ham) 박사의 창조과학 디렉터과 연결이 되어 파트너십을 갖게 되고, 2018년 창조과학캠프 첫 회부터 한인 자녀들이 함께 참석한 것에 이어서 올해 제 2회 "성경적 세계관 어린이 리더십 창조과학 캠프"를 7박8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창조과학(Creation Science) 대가로 이미 잘 알려진 캔함 박사가 이끄는 창조박물관(Creation Museum)에서 어린이와 유스를 대상으로 한 "창조과학 캠프" 외에도, 따로 실물 크기로 당시 방주 안의 생활들을 재현시킨 노아방주 체험방문도 기획해 다녀왔는데, 그동안 진화론으로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자녀들의 반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캠프는 캔함 박사가 고용한 전문 교수들이 가르치며 이미 창조과학에 지식이 풍부한 교사들을 보조로 돕는 체계입니다. 이 분들은 직접 필드에서 일했던 교수들이나 CSI로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종류의 과학을 설명하며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hands-on을 할 수 있는 웍숍을 비롯하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조력을 발휘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수업마다 제작하여 학생들이 점심을 포함한 6시간이 매우 유익하고 짧게 느껴지게 했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이 있기도 합니다.



창조과학 캠프 스케줄과 5일 내용들

저희가 참석한 캠프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끝나며 날마다 모든 수업을 마칩니다. 캠프를 마친 학생들은 저희 단체(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와 함께 숙소에 돌아와 간식을 나누며 그날 배운 것에 대한 리뷰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의 배운 것들을 나누고 토론함으로 미처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놓친 것들이 있다면 서로의 나눔을 통해 다시 배우고, 배운 것중 확실치 않았던 것은 저희 단체에서 창조과학에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진 사역자들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 식사 및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늘 말씀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와 reflection으로 마무리하는 습관도 놓치지 않게 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날에는 공룡에 대한 기원, 공룡의 종류 등을 배우며 그동안 궁금했었던 많은 질문들에 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참고로 창조박물관에는 공룡/Dinosaurs Den이라는 장소가 따로 만들어져있어서 크고 작은 공룡들이 매우 멋있게 전시되어 있으며 많은 자료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화학(Chemistry)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매스터마인드(mastermind)를 가지신 분인지 놀라운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주저 없이 서로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된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법의학(Forensic), 사람들의 지문(fingerprint)을 통해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 있으며 지문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 CSI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셨던 교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 작년 2018년에도 올해도 법의학 시간에 아이들이 더 많은 기대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정식 케이스를 유사하게 카피하여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을 만큼 그러나 충분히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범죄 케이스들을 나눠주어 아이들로 하여금 문제를 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 재미있어하는 듯합니다.

넷째 날에는 아이들이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그날은 우주천문학(Astronomy)을 배우는 날이고, 이날 아이들은 박물관에서 자는 날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천문학에 대해서 배울 뿐 아니라, 박물관 안에 있는 천체투영관(Planetarium)에 들어가 천문학에 대한 멋진 영상을 3-D로 볼뿐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 은하수(galaxy) 및 별자리를 보며 공부하는 시간이 있기에, 아이들에게는 너무 신나는 시간이 되지요. 또한 그날은 Night at the Museum 영화처럼 박물관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게임 등을 하며 저희 Tvnext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Bootcamp식의 스케줄에서 해방되어 좀 더 늦게 잘 수 있는 날 중 유일한 날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아침식사를 캠프에서 한 후 동물학(Zoology)을 배우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얼마나 기본부터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는 동물과 비슷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슷한 것 중 그 확률을 진화론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까지 알려주며, 확실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줌으로 지금까지 학생들이 원숭이가 사람과 같다는 오해를 완전히 파괴시켜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의 열렬한 debriefing 시간을 통해 듣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섯째 날-성경이 말씀하신 사이즈와 내용으로 만들어진 노아방주 방문 체험 일기

2016년 7월 Public 에 Ark Encounter 열림

노아방주는 캔함 박사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비전을 통해 성경에 있는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 2016년 Ark Encounter 이라는 이름으로 오픈되었으며, 방문자들을 위해 몇 가지 현대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외에 거의 흡사하게 재현시키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2층에는 노아방주 때 들어갔었을 공룡을 재현했으며 살아있는 동물도 데리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정체성의 혼돈과 진화론으로 인한 혼돈에 사는 우리자녀들뿐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몇 년동안 남편을 따라 다니며 비즈니스를 돕는다고 먼 길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제가 큰 병나겠어요" 하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병에 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 말대로 큰 병이 들어 어깨가 아파 통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되고 밥맛이 떨어지면서 살도 많이 빠져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큰 차도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제 입술의 부정적인 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입술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요?

-토랜스에서 권

A: 병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와 병원을 만드셨기에 병에 대한 메디컬닥터의 진단과 처방은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병들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아도 모든 병이 메디컬닥터의 처방대로 한다고 다 낫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정신적, 영적인 문제로 생기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병이 나서 의사와 약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안 낫는다고 하니 영적인 처방도 곁들이면 좋을 법합니다. 우선 나의 몸의 병이 떠나고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지난날의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회개하고 취소하고 이제부터 말을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말의 권세 있어, 자신에게 '건강할 것' 말하도록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저주했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말로 내 몸을 축복하십시오.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물 두 잔을 놓고 한 잔은 축복의 말과 모든 좋은 말을 하자 그 병물은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좋은 물이 되었고 또 한잔은 온갖 욕을 하고 악담과 저주를 하자 독성이 있는 산성의 물로 변했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이론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들겠다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몸이 말을 알아듣고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와 이웃에 대해 축복된 말을 하면 축복이 찾아오지만 저주의 말을 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고추를 따려면 고추씨를 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으려면 내입에서 먼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못한다, 안된다, 난 무가치한 존재야, 죽어버리고 싶어, 미치겠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단 내가 병들어 죽는다' 등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저주를 가져주는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할 때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말하는 대로 되는데, 자꾸 아프다 죽겠다고 하면 아프고 죽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보혈의 피로 거듭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오래 오래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더욱 건강할 지어다" 하고 내 자신에게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꾸 내 몸에 복을 선포하면 내 몸은 서서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제 자신도 목회 임상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꼼짝 못하게 묶고(binding) 또한 모든 저주와 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푸는(Release) 권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 북서부의 부족들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주로 나즈막한 산구릉지를 따라 거주한다. 그들은 몬 크메르어(語)족과타이어(語)족에서 유래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북서부 부족들은 대개 자신들의 부족언어와 북부 타이어, 2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주로 북부 타이어 문자를 사용한다.

본래 북서부 부족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살았었지만 한족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점차 남하하기 시작했고 이동 경로에서 부딪히는 많은 종족들을 정복했다. 10세기 경 그들 중 많은 수가 태국에 정착했다.

태국 북부지역은 원래 6세기에 건국된 초기 몬왕국의 영토였다. 13세기에 몬왕국은 타이족에 의해 멸망됐고, 이로 인해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서부 지역들은 방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태국은 잦은 정부교체와 군사폭동을 겪었고 전쟁과 재이주로 인해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

삶의 모습

대부분 부족들은 태국 북부의 산악지대에 살면서 화전농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속적인 화전법의 이용으로 인해 이 지역에 자연 서식하던 열대 상록림 중 상당부분이 파괴됐다. 결국 부족민들은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옮겨 다녀야 했다. 태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평지로 이주해 관개 논에서 쌀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화전농업을 하고 있다.

부족들에게 쌀은 가장 주요한 작물이다. 수수와 양귀비도 경작된다. 밭벼(Dry rice)를 경작할 때는 쟁기나 황소를 쓰기보다는 "땅파는 막대기(digging stick)"를 이용한다. 자체 소비를 위해서나 판매를 위해 논벼(wet rice)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소가 끄는 원시적인 목재농기구를 이용한다.

오랫동안 아편은 부족들에게 현금을 얻기 위한 주요 원천이었다. 허나 아편거래 억제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돼지 사육과 후추 재배 등을 권장하고 있다.

부족 마을들은 논으로 둘러싸인 다소 융기된 평지나 도로변의 고지대에 위치해있다. 마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옥들이 있다. 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튼튼한 마호가니 가옥에서 사는 경우도 있으며, 이 집은 고상식 가옥에 판자 마루와 타일로 된 지붕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지붕과 흙마루로 된 대나무 가옥에서 산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은 불교 사찰이다. 이곳은 마을사람들 간의 단합을 상징하며 마을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정중하며 예의 바르고 호의적이다. 가족은 사회형성의 기본단위가 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의바른 사회 행동방식을 배운다. 즉 상사나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면서도 또 동시에 독립심과 자립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북서부 부족들의 사회는 아주 조직적이다.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연령, 직업과 부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시골의 농부들은 장인들이나 상인, 도시 공무원들보다 낮은 계층으로 취급되며 승려들은 독립적인 계급으로 인식된다.

특히 루(Lu)족은 솜씨 있는 은 세공업자들이다. 남자들은 유명한 루족의 검(Lu sword)을 만들며 여자들은 방적과 자수 등에 뛰어나다. 크무족(Khmu)은 능력 있는 마술사들로 평판이 높다.

신앙

불교는 기원전 329년에 태국에 소개됐다. 야오족을 제외한 많은 부족들이 불교 요소들을 전통적인 정령신앙과 혼합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령과 물건들에게서 도움을 구한다. 그들은 "피"(phi)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제물과 제사를 드려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지역의 부족들 중에서 타이족이나 라오족들은 영적으로 크무족들을 가장 존경하는데, 이는 크무족이 다른 부족들보다 대지와 그 땅의 영들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각 부족마다 적어도 하나의 선교단체가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니용족(Nyong)이나 쿤족(Hkun) 가운데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이 모든 부족들 가운데 일할 만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현재 이 부족들 가운데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완역본을 가지고 있는 부족은 없다. 하지만 니용족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일부는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추가적인 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 여성과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매춘을 해 생계를 유지한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홍콩 시위대에 울려퍼진 복음성가

범죄인 인도 법안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홍콩 기독교인들이 찬송과 기도, 봉사와 섬김으로 큰 도움을 주면서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홍콩 시위대들이 복음성가인 '싱 할렐루야 투 더 로드(Sing Hallelujah to the Lord)'를 합창할 정도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홍콩의 기독교인들은 시위대에게 음식과 쉘터를 제공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홍콩인들은 종교의 유무를 떠나 송환법을 비판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이러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복음성가 '싱 할렐루야 투 더 로드(주님을 찬양합니다)'를 불렀고, 이 노래가 시위대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은 시위대의 공식 '합창곡'처럼 됐다. 이번 시위엔 청년들의 참가도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행진하고 있으며 기타를 메고 걸으며 찬송을 부른다. 또 물위를 걷는 예수님의 성화를 높이 들고 걷기도 한다고 NYT는 소개했다. 시위에 참가한 안드레아 웡(18)양은 "나는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일어난 시위를 보고 좋은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자문했다"며 "예수님이라면 에어컨이 나오는 집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에 홍콩 기독교인들은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증진 등의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750만 홍콩 인구 중 개신교인과 가톨릭 신자는 전체 9분의 1에 해당하지만 비폭력 시위를 주도하면서 시위대가 대외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등 위로와 격려, 영감을 주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 북·중회담 당일 북·중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중국도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한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의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또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성인·아동 집단 동원이나 강제노동 국외 송출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에 따라 각 국가를 3등급(tier)으로 분류한다. 북한과 중국은 가장 낮은 3등급에 분류됐다.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규정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21개 국가가 3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22개국에서 볼리비아와 라오스 등 5개국이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북한과 계약을 맺고 노동훈련소를 운영한 러시아 역시 3등급에 포함됐다.

한국은 17년 연속 1등급을 지켰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33개국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의 기준은 엄격하다. 주요 7개국(G7)에 포함된 이탈리아와 독일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 2등급으로 강등됐다.

미국이 자국에만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한 이후 국제 인신매매 근절에 힘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도 인신매매 문제에 각별히 신경썼다. 하지만 미국이 정작 자국 인신매매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인신매매 관련 기소 건수도 오히려 줄었다고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지적했다.

미국은 2003년부터 매년 6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올해는 마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와 겹쳤다.

트럼프 방한 보따리는…DMZ서 메시지 타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인 오는 29-30일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방한 기간 풀어놓을 '보따리'에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20-21일 방북에 이어 이번 주 G20을 계기로 펼쳐질 릴레이 정상 외교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하노이 노딜' 이후 꽉 막힌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중대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전격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지척에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발신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북미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한 '톱다운 외교'로 국면 전환을 위한 자락을 깔아놓은 가운데 이를 발판으로 북미 간 대화 재개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먼저 한국을 찾는 것도 북미 실무접촉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문 대통령과 30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4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

지난 4월 11일 워싱턴DC에서 마주했던 한미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교착을 타개,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을 방안에 대해 머리를 다시 맞댈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G20 정상회의 기간 시주석을 통해 '평양 회담' 기간 청취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토대로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한미 정상 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시계가 빨리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측 중재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제시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타전할 메시지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찾아 김 위원장의 목전에서 연설 등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의 메시지를 내보내며 '올리브 가지'(화해의 몸짓)를 내민다면 이는 하나의 큰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 '분단의 상징'인 남북 접경지에서 70년 적대 청산 및 새로운 관계 구축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물줄기를 트는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첫 방한 때에도 문 대통령과 함께 DMZ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다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성경번역, 복음전하고 소멸위기 언어도 구한다!

〈1면에서 계속〉

언어학자 K. 데이비드 해리슨이 성경번역이 언어에 끼치는 영향을 다룬 학술서 "성경번역을 통한 언어의 생명력(Language Vitality Through Bible Translation)"의 서문에서 한 말이다.

그는 "그러나 성경번역은 또한 원 프로젝트 훨씬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며, 언어 생존을 보장하는 뛰어난 모범 사례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7,111개 언어 중 약 3분의 1이 소멸위기 언어다. 사용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언어가 그만큼이나 된다는 뜻이다. 세계화는 다국어 사용자에게 모어(母語) 대신에 공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언어"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

"어떤 언어가 소멸 위기에 있다는 것은 또한 다른 어떤 언어의 지배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IL의 조사연구최고책임자인 게리 사이먼스의 말이다. SIL(https://www.sil.org)는 세계 언어 조사 연구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기독교 언어 연구 사역 단체다.

사이먼스는 "소수 언어 그룹이라고 해서 더 이상 고립돼 있거나 단일 언어 사용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 언어가 지배하는 국가나 지역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지역에서 상거래를 하거나 교육, 의료, 은행,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국가 차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배적인 언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엔은 2,600개 이상의 언어가 (종종 대면관계에서만, 또는 가장 나이든 세대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소멸 위기에 몰려 있다며, 2019년을 '세계 토착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Indigenous Languages)'로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이먼스와 SIL은 언어 소멸에 대한 일부 예측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마다 약 9개 언어가-40일마다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SIL 여름 캠프는 원주민 청소년들이 모국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과 유튜버 비디오 시리즈를 통해 소멸 위기 언어 사용자들을 교육한다.

한편, 여러 문화권의 성경번역 프로젝트는 소수 그룹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존하거나 쇠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언어의 상황을 역전시킴으로써 토착 언어의 미래를 밝히는 데 오래 전부터 기여해 오고 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두고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언어에서 벗어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키너의 말이다.

다국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배적인 언어를 더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로 생각하고, 모어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가정을 은연중 하게 된다.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의 키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언어는 글로 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네 언어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있게 되면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하고 파나마 부족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자기네 언어로 부족 이름을 썼을 때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회상했다.

그는 지역 번역가와 협력해 처음으로 텔리베(Telibe)문자를 개발했다. "자기네 언어가 얼마나 풍부한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번역은 서면, 녹음,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소멸위기 언어를 문서화하고 보존하는 자원을 제공하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할 때가 많다고 해리슨은 앞의 저서에 썼다:

"성경번역은 품격과 긍지를 심어준다. 품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어 회복력 및 생존력, 그리고 언어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성경번역 프로젝트는 소멸위기에 있는 언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이며 지역 사회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성경번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지만, 학교들은 그동안 공교육에서 "제1 언어 우선" 정책을 유지해왔다. 키너는 파나마 정부가 위클리프의 성경번역 프로젝트 몇 년 후에 부족 출신 학생들을 위한 이중언어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아프리카연합성서공회의 번역 컨설턴트였던 아로가 베송은 아프리카의 모어 교육을 옹호하면서, "언어의 권리(linguistic rights)는 곧 인권"이라는 유엔 선언을 인용한 적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 우림에 있는 힉스카르야나(Hixkaryana)어와 파우마리(Paumarí)어로부터 동유럽의 코카서스 알바니아어와 조지아 고어(Old Georgian)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언어가 성경번역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문자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많은 신자들에게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계7:9).

키너는 유버전 바이블(YouVersion's Bible) 앱에서 영어 성경과 틸리베 성경을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문화와 언어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시각을 주셨다"며, "언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 스스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6. 조희염(1885-1950)

캐나다, 시카고 대학 유학...한인교회 설립 발기인으로 전도/설교 목사 재직
북미주대한인유학생총회 통해 문화사역...귀국후 교수, 목회 중 6.25때 순교

조희염(曺喜炎)은 1885년 2월 20일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했다. 서당에 나가 한문을 공부하던 그가 20세쯤에 캐나다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의 경신학교에 진학하여 1911년에 졸업했다.

캐나다 여선교사의 도움으로 조희염은 1918년에 캐나다 할리팍스에 있는 장로교대학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1921년에 졸업했다. 졸업하던 그해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낙스 대학에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토론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사를 취득했다.

유학생 기도회 설교자

시카고 한인교회가 창립되기 전 1922년경 시카고 남쪽 레익팍의 김일선의 셋집에서 모이는 유학생 기도회와 1923년경 북쪽 링컨 애비뉴의 강영소 부부의 집에서 모이는 이민자 기도회가 있었다. 낙스 대학에 재학하던 조희염이 남쪽 유학생 기도회에서 가끔 예배를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남쪽 유학생 기도회에는 담임목사가 없었으므로 신학생들이 번갈아 매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는 증언이 뒷받침해 준다. 당시 유학생 기도회에는 차의석, 황창하, 현정염, 염광섭 등 10여 명의 유학생이 출석했다고 한다.

시카고 한인교회 전도목사

조희염은 박사학위를 하고자 미국 시카고대학교 신학부에 등록했다. 재학 중 그는 1925년과 1926년에 걸쳐 외국인학생회 회장, YMCA 외국인학생부 부장을 역임하는 등 학생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1924년 7월 27일에 시카고 한인교회가 창립될 때 조희염은 강영소, 김경, 박장순, 차의석, 김원용, 염광섭 등과 함께 본 교회의 설립 발기인이었다. 김창준 목사가 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조희염은 전도목사로 선임되었다.

조희염 목사 (1926년)

그해 12월 29일 하오 7시경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탄 경축과 송구영신을 위한 연회에서 그의 이름이 나온다. 이날 내한 선교사였던 가필드 앤더슨 박사 내외, 뉴욕 YMCA 총무 E.H. 락우드, 시카고대학 청년회 위원 B.W. 딕슨 내외, 시카고 장로교 목사 브라운 박사 내외, 한인교회가 사용하던 미국인 교회의 화잇 사모와 한인교회 반주자 핫필드 여사와 한인교회 솔리스트 채니 여사가 참석하였고, 근자에 유학 온 노중택과 팍 대학생 김마리아가 참석했는데 그들은 특별 내빈이었다.

1부에 만찬회가 있었다. 만찬회 첫 순서로 조희염 목사가 기도하였다. 이후 김창준 목사의 경축사, 브라운 박사의 말씀, 채니 여사의 성탄 창가, 핫필드 여사의 풍금 연주, 김 경의 화잇 박사 축사 대독, 화잇 사모의 말씀, 딕손 여사의 풍금에 맞춘 딕손의 찬양, 락우드의 말씀, 핫필드 여사의 풍금 독주, 앤더슨 박사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난 후 10여 명의 어린이와 본 교회 설립에 공헌한 미국인 친구 제씨에게 선물을 주었다.

2부 여흥회는 그날 9시 반부터 시작하여 11시경에 마쳤다. 이날 준비한 한국 음식은 평양 국수, 서울 장국밥, 경상도 대구 자반, 제주 용마탕, 진남포 이삿떡, 원산 명태 자반, 만경 만두국, 송도 송편, 금포 김치국 그리고 5백년 이시조의 이밥 등이었다.

시카고 한인교회 설교 목사

김창준이 게렛 신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1926년 11월쯤에 시카고를 떠났는데 그가 떠난 후 조희염이 전도목사에서 강영승, 노준택, 염광섭과 함께 예배 인도자겸 설교 목사로 변신했다.

조희염의 첫 행사는 1926년 12월 크리스마스 축하식이었다. 본 축하식에는 연극이 있었다. 유학생들과 교회 유지인사들이 작은 연극을 준비하여 출연하였는데 이날 들어온 의연금이 무려 600여 달러였다.

위의 크리스마스 축하식 의연금 600여 달러를 토대로 하여 여러 인사가 드린 헌금으로 시카고 한인교회는 예배당 구매를 서둘렀다. 본 교회 이사부가 우선 셋집이라도 빌려 교회당으로 사용함이 좋다고 여겨 레이크팍 애비뉴 3901번지의 가옥을 세 얻고 1927년 5월 8일에 첫 예배를 드렸다. 이전의 예배는 현재의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 부근의 세인트폴 예배당에서 있었다.

그날 오전 11시에 드린 첫 예배는 개당식으로 거행했다. 이 건물에는 예배 등 집회를 할 수 있는 처소뿐만 아니라 8, 9개의 침실도 있어 시카고 거주 한인들과 시카고를 오가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었다. 김일선의 부인 김현숙이 이러한 본 교회 사무를 담당하였다.

조희염의 목회는 한승곤이 시카고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던 1927년 12월 전까지다. 그의 섬김은 1년 중 얼마였다.

북미주 대한인 유학생 중부대회

조희염은 유학생으로서 북미주 대한인유학생 총회를 중심으로 유학생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사역을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썼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가 북미주 대한인유학생 총회의 회장재직 시 북미유학생 중부대회가 1927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시카고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있었다.

본 대회는 특별히 임시정부 공고책, 구미위원부 문제, 당쟁 조화책, 표면운동 문제, 민족 사회 양주의 조화책 그리고 전투 문제 등 한인 사회의 긴급한 정치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을 순서의 중심으로 하였고, 분과위원까지 두어 당면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를 철저하게 연구하여 보고한 후 토의하고 결의하기는 북미유학생회가 있었던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에번스턴의 스웨덴신학교 강당에서 모인 제3일 제삼 토론회에서 외국선교회 문제도 다루었다. 우선 분과위원회가 보고하고 이어서 선교회 필요 여부, 선교회의 흠결 그리고 선교회 개선책을 오천석의 인도로 토의했다. 조희염이 당시 북미주 대한인유학생 총회의 총회장일 뿐 아니라 중부대회 '선교회 문제과'의 4명 위원 중 한 명이었으며, 특별히 본 교회 설교목사였으므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크게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미주 대한인유학생 중부총회가 주최하고 시카고한인교회의 대한인부인회가 후원하여 그해 9월 8일 목요일 하오 8시부터 시카고 시내 세인트 제임스 미국 감리교 예배당 부속 주일학교의 연극실에서 음악회와 연극회가 있었다. 입장권은 평균 1달러 50센트였다. 이 입장권 수입으로 북미주 대한인 유학생 총회가 발행하는 '우라키'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출연한 사람은 여학생으로는 성악으로 유명한 임베세와 손진실,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윤성덕과 김진주 등이 있었고, 남학생으로는 성악으로 유명한 윤기성과 박리근 그리고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현재명도 있었다. 그 외에 손캐트린과 오천석 등이 협력했다. 전직 총회장이었던 조희염의 뒷바라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우라키 제1집

'우라키'는 1925년 9월 26일에 창간된 북미유학생 총회의 기관지로 서울서 발행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안동원, 인쇄인은 정경덕, 인쇄소는 조선기독교 창문사, 총판은 한성도서와 평양 광명서관 그리고 시카고 구미 총대리부였다. '우라키' 제1집은 A5판 170여 쪽으로 미국에서 50센트였고, 신한민보사를 통하여서도 구매할 수 있었다.

조희염의 신학사상은 '우라키' 제3집에 기고한 '인류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본 기고문은 71쪽에서 79쪽까지 8쪽에 해당했다.

졸업과 귀국

한국의 캐나다 선교부로부터 '귀국해서 귀하의 힘을 한국 신학교육에 보태주시기 바란다'는 초청장을 받고 박사학위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조희염은 귀국한다. 1927년 11월 25일에 그는, '신한민보'를 그대로 빌리면, "다년간 북미 학창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형설의 공을 쌓았던 바 금번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환향의 길을 떠났다."

귀국한 조희염은 함흥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교에 교수로 봉직하면서 신학교 신학부장의 책임을 맡고, 함흥 YMCA 총무직도 겸했다. 그는 계몽운동에 집중하는 한편 복음전도를 위해 북한 전역은 물론 만주 북간도까지 순행했다.

1929년 2월에 미국 중가주 다뉴바 한인교회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가 함흥의 이재민 동포에게 의류 다섯 궤를 보냈을 때 함흥구제회 회장에게로 부쳤는데 당시 구제회 회장이 조희염이었다.

그런데 호놀룰루한인감리교회의 홍한식 목사가 하와이의 와이파후 교회로 파송되어 본 교회는 적임자가 없어 공석으로 남았을 때 조희염이 3개월 후에 본 교회로 부임한다는 1929년 10월 3일 자의 '신한민보' 기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고, 드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변홍규가 부임하였다.

조희염은 1930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세계면려청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사정을 소개하고 한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간청했다. 이 일로 귀국 즉시 옥고를 치른 후 그는 유럽과 러시아 여행기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바깥 세상을 알렸다.

1938년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강제 폐교되자 조희염은 이듬해 3월 27일에 '장로회 신학교 설립기성회 실행위원회' 이사가 되었고, 1940년 4월에 '조선인에 의한 장로회신학교'설립에 뜻을 모아 서울 승동교회에서 개교한 조선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해방되면서 38선이 그어져 원산에 묶인 조희염은 원산 남부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였다. 평양의 조만식이 있다면 원산에는 조희염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원산에서 존경받는 존재였다. 6.25동란이 일어난 지 4개월쯤 되던 1950년 10월 9일 새벽에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조희염은 향년 65세로 순교했다.

damien.sohn@gmail.com

리더십 코멘터리 (91)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기독교리더십의 회복과 사회적 발전

힘은 주께로부터...하나님의 뜻대로 갈등보다 명확한 비전제시

세속적 권위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 발휘해야

기독교리더십에 의지할 수 있게 모범을 보여라

기독교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다. 크리스천이라는 명함을 내밀고 환영받을 자리가 별로 없을 정도로 반 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하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비기독교인과 다를 바 없는 기독교인들의 세속화, 언론매체의 편향된 보도, 인본주의에 물든 지식인들과 그들이 형성하는 담론의 반 기독교적 정서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격렬한 격변기를 살아가고 있다. 첨단기술이 융합된 과학기술혁명과 지구가 하나의 촌락이 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경제, 사회적 변동은 우리 사회 전반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불확실성과 복잡성 등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교회는 세대와 계층과 이념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독교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어가며, 심지어 일부 기독교리더들과 크리스천들의 윤리적, 도덕적 결함 등으로 기독교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교회의 이미지가 심히 훼손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침체된 교회의 부흥과 기독교 개혁을 위해서 기독교리더와 크리스천들이 삶의 실천적 모범과 자기개혁을 통하여 사회개혁의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독교리더십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기독교리더십은 변화해야 한다

미국의 주류 신문중 하나인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당장 일을 그만두겠는가?"라는 설문이 있었다. 사람들의 응답을 보면 "물론이다"가 45.4%. "아마 그럴 것이다"가 18.9%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9%에 그쳤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명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고 있다. 소명의식이 부족한 크리스천 리더들은 사람들만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실망시키고 있다. 그들은 조직과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 죄책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조직과 공동체에 변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과 공동체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한다. 조직과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이전의 태도와 행동과 그리고 안락한 자리를 일부 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거나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변화에 그토록 완강히 저항하는 이유는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버리거나 조정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독교리더십이 근본부터 변해야 할 때이다.

기독교리더십의 근본 뿌리

기독교리더십의 특징은 겸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사랑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출발한다. 리더의 평온은 겸손으로 육성되며, 겸손을 통해 삶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 기독교리더십의 근본 뿌리인 겸손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태도 등으로 말할 수 있다. 리더는 주님께로부터 자신의 힘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리더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목하는 갈등보다는 명확한 비전을, 세속적인 권위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섬기는 겸손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한 탐욕스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거룩한 곳을 향한 움직임이다. 그리스도의 첫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이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 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겸손의 길이다.

기독교리더십을 위한 코멘터리

목회자나 선교사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반 직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해석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사업가, 의사, 교육자, 정치가, 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리더십이 회복될 때 사회적 발전이 가능하다. 기독교리더십을 위한 몇 가지 코멘터리가 있다.

첫째, 사람들을 감동시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라. 이것이 리더의 영향력이다. 둘째, 성령께 의존하라. 이것이 참된 영적리더의 본질이다.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되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셋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지는 리더가 되라.

넷째,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라. 이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교회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세우셨는가? 외관상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 곡물창고를 짓고, 식량 배급 제도를 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은 당대의 전문 종교인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정부 관리를 택해서 불신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라. 영적 리더십의 최대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다수 리더들이 조직의 공격적 목표를 정하고, 인간적인 꿈을 꾸고, 인기를 끌 수 있는 비전을 내놓는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일에 합세하여 인간의 노력에 하늘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구한다. 이것은 영적리더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독교리더십의 핵심은 영적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들을 움직여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급변하는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그때와 지혜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이것이 어리석은 아니 피조물인 인생의 한계며 어쩌지 못하는 현실이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너나없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 혹은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무심히 떠가는 흰 구름을 보고 어떤 이는 꽃 같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새 같다고 말한다. 보는 눈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심히 흐르는 세월을 두고 어떤 이는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느리다고 말한다. 세월의 흐름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교훈이 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이 사람이 다름으로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면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이다(전3:1-9).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때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때를 아는 것이 어떤 때는 지식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경험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더욱 쉽지 않은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해산을 했는데 한 여인이 부주의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 죽이고는 다른 여인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 두 여인이 서로 산 아이가 자신이 낳은 아이라며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이 내린 판결은 지혜의 몫이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3:10-11).

지혜로만 알 수 있는 때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설명이다. 때가 사람의 상황과 실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역사(役事)하신다는 사실을 지혜로 알게 되고 때에 순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다.

지혜자는 또 한계에 묶여 사는 인생들에게 설파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3:12, 13).

때에 매인 채 허덕이며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때를 활용하여 고민과 고통까지 해소하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의함으로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때의 주인이 누구인가도 결론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전3:14,15).

하나님이 따지시는 때는 인생 혹은 피조물의 때와 같지 않다. 이를 아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다. 오직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는 인생들이 나누고 느끼는 전도서 3장 1-9절에서 소개하는 그런 때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적용할 때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인 지혜로만 알 수 있는 지금이라는 때는 바로 놓쳐버린 그때로 인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때라는 사실이다. 인생의 복은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닳아 없어지기까지 쓰여지는 것이다. 이를 아는 것이 바로 그때를 아는 지혜(智慧)다.

hanmac@cmi153.or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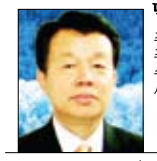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싸움"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매일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치러지는 싸움이라 그 싸움에 대하여 너무 해이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 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의식을 하지 않은 결과 매일 치러지는 마귀와의 싸움에 대하여 전혀 긴장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은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증거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벧전5:8-9). 마귀의 존재를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이나 상징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12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또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마귀와의 싸움터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말씀묵상과 기도)으로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경건의 시간으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때 죄악의 쾌락을 즐길 기회가 오면 단호하게 거부하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경건의 시간으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때 온갖 두려움의 상황들을 물리치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경건의 시간으로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때 돈을 하나님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밀이 있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계12:11). 믿음의 선조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밀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말씀이었다. 바로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말씀(복음)이다. 매일 아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장해야할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는 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일이다. 얼마나 많은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서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날은 복음 교리가 굉장히 쉽게 접촉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복음에 관하여 들려지고 있다. 그런데 복음이란 용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는 반면에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는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고백보다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모호한 하소연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Sola Gratia).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직장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income을 얻는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비즈니스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income을 얻는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학교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학위를 얻는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세상은 income을 얻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income과 학위 취득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다.

뒤뜰에 자라나는 잡초를 뽑고 나서 이젠 뒤뜰이 참 깨끗하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며칠을 지내면 금새 또다시 잡초가 자라 올라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기본적인 활동들과 교회 생활로 만족하려는 생각을 경계하라. 그렇게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동안 영적 잡초들이 자라 올라와서 마귀가 뛰어 노는 놀이터가 되고 말 것이다. 매일 아침 경성하여 깨어 있기 위하여 사활을 거는 심정으로 하루를 맞이하라.

에베소교회처럼 처음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오디게아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아디라교회처럼 거짓된 교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데교회처럼 죽은 것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교회처럼 이미 가진 것을 힘써 지키고 더욱더 풍성히 얻기를 힘쓰라. 고상한 학문과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세상살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풍족히 즐기고, 비즈니스에 수완에 능통한 것 등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복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갈망하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세기총 통일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

세기총 미얀마 양곤서 통일 기도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수석상임회장 윤보환목사)가 6월 20일 오전 7시 30분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Novotel Yangon Max 호텔에서 제16차 통일기도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엡1:10)"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순서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사회로 대회사에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환영 및 내빈소개에 준비위원장 김균배 목사, 환영사에 초청된 VIP인사들, 대표기도에 미얀마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얀기총) 전용환 장로, 성경봉독에 미얀기총 김상길 선교사, 특별찬양에 미얀기총 김미혜 권사와 김귀례 집사, 설교에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헌금기도에 미얀기총 김예영단장, 봉헌송에 미얀마 복음송 가수 Ms, An Moon, 특별기도 MBC 사무총장 로벗붐 목사("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이민철 선교사("미얀마 복음화를 위하여), 미티콩 태국선교사("헐벗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들과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정광수 목사("3만 해외 선교사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 정서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면 희망의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면서 "이 기도운동은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와 함께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고,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평화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리고 전했다.

이어 격려사에서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는 "백성의 백성을 위한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미얀마한인회 힘효택 위원장과 MBC총회장 Maung Mayung Yin이 축사를, 최낙신 목사가 준비위원장 김균배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사회자의 인사와 광고가 있은 후 다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른 후 황의춘 목사 축도로 모든 기도회 순서를 마쳤다.

한편 세기총은 19일 오후 세기총 미얀마지부장 임명식(지부장: 김균배 선교사)을, 21일에는 미얀마 국립양곤대학교 초청으로 역사학과 학장 모모탄 박사를 만나 학교가 추천하는 우수 교수 & 학생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항공료를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어 역사학과 석사과정의 학생들 50여명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균배 선교사 통역으로 고시영 이사장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올바른 지도자 상"을, 황의춘 증경대표회장이 "차세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고찰"에 대해 강의해 큰 호응을 받았다.

세기총은 계속해서 8월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10월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12월에는 볼리비아 등 여러 곳에서 통일기도회를 계속한다.

〈기사제공: 세기총〉

베데스다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믿음의 꿈 큰 배낭 갖고 세상 향해 나가라"

베데스다대학교 제 42회 졸업 및 학위수여식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조승제 박사) 제 42회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조지 위니 박사의 사회로 열린 2부 학위수여식은 제미 밴더 스테이시가 미국국가를, 조지 위니 박사가 학교 역사를 소개한 후 설립자 조용기 박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모두를 축하한다.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꿈인 큰 배낭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훈 박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졸업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성장 단계 중의 하나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잊지 말라.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졸업생들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 조승제 박사가 학위수여를 했으며 이사장 김성혜 박사가 격려사를, 김경문 박사와 Jorge Cisneros 애너하임 경찰서장이 축사를 한 뒤 음대 교수 및 재학생들로 구성된 밴드가 축하 연주를 하고 다함께 교가를 부른 뒤 진유철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유건형 교수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는 Dr. Han Yeh Chang이 대표기도를, Peng Wu가 특송을 한 후 진유철 박사(베데스다대학교 직전 총장)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마7:13-14)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베데스다대학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가 세계를 주도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학교로 교회, 지역사회, 세계에 있어 전문적 능력, 학문적 우수성, 종교적 진실성을 지닌 한국어 및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키는 기독교 중심 고등교육 기관이다.

베데스다대학교는 BPPE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학위인준기관인 CHEA 산하 ABHE와 TRACS에서 대학원 및 목회학 박사과정이 정식 인준된 4년제 정규 대학교이며, NCCAA(전미기독교대학 체육협회)에도 정식 가입된 학교로 미 주류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문의: (714)683-1212

〈정리: 박준호 기자〉

본사방문

윤승준 선교사(EXIT 미니스트리 대표)

정보화 시대 … IT 통해 효과적 복음전파

6월 29일-7월23일 전미투어 강의

컴퓨터와 정보통신 등 IT업계에서 38년간 종사해온 IT스페셜리스트 윤승준 선교사(EXIT미니스트리 대표)가 6월 25일 오전 본사를 방문, IT관련 선교를 소개하며 사역에 대해 설명했다.

윤승준 선교사는 35년 전 찬송가 반주기를 개발해 교회에 보급하는 일로 교회의 예배사역을 돕기 시작했으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통해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있다.

윤 선교사는 "IT업계에 종사했던 것들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마다 복음을 증거 했던 방식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은 IT를 통한 복음전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영상을 통한 설교제작과 보급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선교사는 "과거 목사님의 설교는 테이프를 통해 집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용으로 제작된 설교테이프는 마켓에 비치돼있었고 주말마다 쇼핑을 하러 오는 자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설교테이프를 전달했습니다. 요즘은 CD나 DVD를 나눠주기도 하고 비치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비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전도용으로 나눠줘야 할 설교CD가 타 교회 교인을 빼내오는 용도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새로운 형태의 전도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유투브와 스마트폰이 새로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교회가 교회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디자인된 홈페이지에 가면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서 설교를 보는 분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교회마다 제작된 설교동영상을 유투브에 채널을 만들어놓고 매주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교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교영상을 지인들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마켓전도용으로 제작되는 DVD는 교회정보나 설교영상 외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했다.

"예를 들면 USC 교수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USC 교수가 말하는 USC 진학가이드를 시리즈로 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학가이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목사님 말씀도 함께 포함해 제작한다면 실질적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윤 선교사는 모든 교인들이 영상시대에 맞는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위해 5년 전부터 스마트폰 무료강의를 해오고 있다.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스마트폰 전미 투어 강의를 하게 되는 윤승준 선교사는 스마트폰 강의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강의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지역과 세계선교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전미투어 일정은 다음과 같다.

△6/29-30 아리조나 △7/2-4 텍사스 △7/6-7 플로리다 템파 △7/8-10 조지아 △7/11-13 워싱턴DC △7/14-17 필라델피아/뉴욕 △7/19-20 시카고 △7/22 덴버 △7/23 LA도착.

윤선교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IT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적화된 21세기형 선교의 도구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IT가 사탄의 도구가 돼있다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IT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음전파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7천마일 정도가 소요되는 이번 투어를 통해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서도 IT선교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남겼다.

이에 관한 문의는 (909)971-772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저지한인목사회 정기총회

제 10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김종윤 목사) 정기총회가 7월 8일(월) 오전 10시 드림교회(유병우 목사)에서 개최된다. 목사회 연 회비는 100달러.

▲문의: (201)870-3373 김주헌 총무

2019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4차 준비기도회

제 45회기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가 주최하는 '2019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한 제 4차 준비기도회가 7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캐더린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킹덤처치 세우기'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주최하는 '킹덤처치 세우기' 세미나가 7월 9일(화)과 10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새힘교회(박태규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종필 목사(세상의빛교회 담임, 킹덤처치연구소 소장)로 △킹덤처치 이론과 실제 △하나님나라 신학 △하나님나라 성경관통 △하나님나라 제자훈련이 강의된다. 등록비 50달러(중식 제공, 교재 별도).

▲문의: (929)353-2727, (917)992-5200

도시선교팀 HUG 뉴욕순회 집회

도시선교팀 HUG(대표 오영섭 목사)가 2주간 뉴욕순회 집회를 갖는다. 일정은 △6월 28일(금)-30일(주일): 겟세마네교회(이지용 목사) 예수사랑초청잔치 △7월 1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목회자 대상 HUG 전도 세미나, 뉴욕로고스교회(임성식 목사) △2일(화) 오후 7시 30분:뉴욕화요찬양모임 특별출연 △5일(금) 오후 8시 30분: 새가나안교회 금요집회(최요셉 목사) △6일(토)-7일(주일) 뉴욕플러스교회(김춘근 목사) 전도축제.

▲문의: landmarkerministry@naver.com

새힘장로교회 새 예배당 입당예배

뉴욕 새힘장로교회(박태규 목사) 새 예배당 입당예배가 6월 30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주소는 47-33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문의: (718)888-0788

바울신학원 여름 특강

바울신학원(원장 김동수 목사) 여름 강좌가 뉴저지초대교회 선교관(1355 15th Street 2nd Floor, Fort Lee, NJ)에서 열린다. △7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강사 김인환 목사(Ph.D. 구약학, 전 총신대 총장)가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세계관(Divine Sabbath and Man's Worldview) 주제로, △7월 15일(월) 오후 7시 30분 강사 박은호 박사(D.Min, 기독교상담학)가 "그리스도인의 행복관"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문의:(201)767-0400

분노관리 세미나

목회적돌봄선교센터가 주최하는 분노관리 세미나가 6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매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제일장로교회(16 south 9th St, New Hyde Park, NY)에서 열린다. 강사는 임근영 목사이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516)860-2600

EM 사역자 청빙

뉴욕감리교회(강원근 목사)가 EM 사역자를 청빙한다. 목회 사역 범위(Ministry Position)는 EM(College student/Young Adult) 주일예배 인도, 금요일 성경공부 및 모임(Sunday Worship/Friday Bible Study and Small Group), 수련회/선교 인도(Outreach Mission and Retreats)이며 지원서류(Application Requirements)는 Resume, Personal Testimony and Vision.

▲이메일: wokang@gmail.com

연합사역할 때 마음 상하지 말라...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뉴욕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서 개최되는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3차 준비기도회가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 동원"이라며 "강사 정연철 목사(삼양교회)가 현재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금식기도 중이다. 우리도 하루라도 금식기도 하며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45회기 뉴욕교협의 표어인 '성결한 삶'을 주제로 정한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 목회에 도움이 되는 대회, 나아가 뉴욕 사회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천국대잔치가 되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예배는 부회장 양민석 목사 인도로 안경순 목사의 개회찬양 후 기도 최은종 목사, 성경봉독 김영호 장로, 말씀 김승희 목사, 합심(통성)기도 한기술 목사 박시훈 목사,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박태규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증경회장)는 "마음을 상하지 말라"(민21:4-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생활은 출애굽 광야생활과 유사하다. 본문에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 교회생활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마음이 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상하면 손해 보는 것은 자신"이라고 말하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 3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하나님으로 인한 경우, 이삭을 받치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 예수님이 귀신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 등이다. 둘째, 주의 종들로 인한 경우 나아만 장군의 경우, 셋째, 교인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김 목사는 "연합사역을 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라"고 말했다.

박성원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회무에서는 김재권 준비위원장이 건강상 불참해 정순원 회장이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각 교회별 후원금을 당부했다.

또 이날 월드허그재단 송병기 목사와 북미원주민선교회 이재봉 목사, 과태말라선교회 한재홍 목사가 각각 사역을 소개했다.

4차 준비기도회는 7월 2일(화)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캐더린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설립 20주년을 맞은 뉴저지 새언약교회가 임직식 및 '탕자' 공연을 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앞으로 10년 향해"

뉴저지 새언약교회 20주년 임직식 및 '탕자' 공연

뉴저지 새언약교회(김종국 목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3일 임직식과 축하 행사들을 진행됐다.

오후 12시50분 예배에서는 임직식이 열려 이창섭 장로와 박은숙 권사를 임직했다. 임직식에서는 조진모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축사 김진양 목사와 원도연 목사, 권면 송호민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오후 6시부터는 오페라 '탕자'가 공연됐으며 헌금은 멕시코 유카탄 선교후원금으로 사용된다.

공연에 앞선 짧은 메시지에서 김종국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양육하겠다는 자세로 사역했는데 지난 20년이 돌아보니 지금 남아있는 성도보다 떠난 성도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아 교회와 지역사회 특히 떠난 성도들을 생각하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종국 목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 공연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참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페라 카메라타가 주관한 오페라 '탕자'는 클로드 드뷔시의 작품으로 지휘 이병현, 소프라노 박진원, 테너 김성욱, 바리톤 유영광, 피아노 정한나, 카메라타 남성중창단 등이 출연했다.

또 팬 플룻(Pan Flute) 연주와 멕시코 선교보고 및 봉헌이 진행됐다.

김종국 목사는 20주년을 맞아 선교를 강조하며 "전반 10년에는 교단 선교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미얀마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고, 후반 10년에는 멕시코 유카탄에 3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감사한 것은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100세가 되셨을 때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주실 때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온 양떼들의 가정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참 목회'라고 하신 말씀대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돼 모든 가정의 식구들을 기억하고 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목회의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종국 목사는 "이제 앞으로 10년은 우리 새언약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이민교회가 그렇듯이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이때에 2세가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 생각해 금년부터 매월 첫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연합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들에게 이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영어가 불편해도 차세대를 위해서 모든 예배의 진행과 찬송과 설교를 영어로 70%, 한국말로 30%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행착오 속에서 시작된 예배지만 이제는 그들이 1세를 이해해주는 차원에서 한국말 찬양을 한두 곡씩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목사는 "또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 및 구제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임을 기억하고 전 교인이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향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문을 더욱 열어, 오늘과 같은 오페라 공연을 함으로 지역과 이웃들을 향해 복합문화의 사역(Cross-Cultural Ministry)을,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일을 준비하는 앞으로의 10년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김종국 목사는 RCA 한인교회협의회 전국회장, 뉴저지교협 회장 등 교단과 교계 연합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어머니기도회 6월 정기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자"

뉴욕어머니기도회 6월 정기 기도회

뉴욕어머니기도회(회장 심화자 목사) 6월 모임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에서 제 31차 어머니기도회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는 양승호 목사가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함"(막 1:16-18)의 제목으로 전했다.

양 목사는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첫째 기쁨의 삶, 둘째 감사의 삶, 셋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며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게바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치 있는 영혼구원의 사도로 변화된 것같이 모든 어머니들이 마음의 그릇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의 그릇에서 비난과 불평의 말을 비우고, 몸의 그릇에서 찡그린 얼굴을 버리고 칭찬하며 감사하며 웃는 얼굴로 남편과 자녀에게 기쁨을 주는 어머니들이 되라"고 말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회개와 성령충만 △조국과 미국 △글로벌연합회와 글로벌뉴욕연합회의 확장 △중남미 어머니기도회 4개국과 한국 대구, 이제 시작될 일본어머니기도회(회장 황주네 선교사) △임원단 가정과 자녀 섬기는 교회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별히 암투병 중인 △김동원 여성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GKWPA) 중점사역 중 세계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인 어머니기도회가 중남미를 비롯해 한국에서도 진행됐다.

니카라과어머니기도회(회장 김연희 선교사)는 어머니날을 축하하며 김영두 선교사의 설교 후 기도제목을 놓고 둘씩 짝 지어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콜롬비아어머니기도회(회장 김혜정 선교사)는 6월 7일 43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이번 기도모임에는 시청 담당자가 "가정폭력"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테말라기도회(회장 박윤정 선교사)는 6월 1일에, 대구어머니기도회(회장 신동숙 원장) 는 6월 13일에 진행됐으며 엘살바도르어머니기도회(회장 황은숙 선교사)는 6월 25일 진행된다.

〈기사제공: 뉴욕어머니기도회〉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미국내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신 분
교회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가 능숙하고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포함)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추천서 3부 (목사님 2부, 교인 1부)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

온라인:http://www.daviskoreanchurch.org/dkcpsc
우편: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 603 L st. Davis, CA 95616
제출 기한: 2019 년 **7 월 20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서류출은 e-mail (dkcpsc@gmail.com) 로 해주세요.

데이비스 한인교회 청빙위원회

Davis Korean Church
603 L Street Davis, CA 95616

대한민국 구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6.25 69주년 상기예배 및 연합기념행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는 6.25 69주년 상기예배 및 연합기념행사를 23일 오후 5시30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가졌다.

회장 김관진 목사는 대회사에서 "69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단의 6.25전쟁의 아픔을 나누면서 공산치하로 떨어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들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6.25 69주년 상기예배 및 연합기념행사에서 전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샘신 목사(직전회장) 사회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감사 및 위로 기념행사는 재미헌병전우회 기수단의 입장,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졌고 권상욱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애국가를 불렀으며 지경 집사(은혜한인교회)가 미국국가를 부르고 이상권 목사(부회장) 지휘로 6.25 노래를 합창했다.

이어서 '6.25 참상과 대한민국의 오늘'이라는 주제의 특별영상이 상영됐으며 주옥순 집사(탈북자)의 '그리운 어머니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김빅토리아 씨가 대독했고 박숙희 선교사가 특별 찬양했다.

이날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엄규서 목사(증경회장)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염교회)가 '조국의 국론통합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최학량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회장)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김영구 목사(증경회장)가 '북한 동포와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그리고 데이빗 로페즈(KWVA Ch.56)가 미국군 대표로, 김해룡 회장(6.25 참전유공자 남가주지회)이 한국군 대표로 한국전 참전 회고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며 6.25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날 행사 전 열린 6.25 상기예배는 박세헌 목사(부회장) 사회로 은혜한인교회 찬양단의 찬양과 경배로 시작, 이호우 목사(OC교협 직전회장)가 기도했으며, 이정현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은혜한인교회 장로 성가단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설교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6.25전쟁'(시33:8-12)라는 제목으로 한기홍 목사가 설교했으며 김창식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직전회장)가 축도했다.

엄규서 목사(부회장) 사회로 열린 교제와 만찬 시간은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가 만찬기도를 했으며 황인상 LA부총영사, 영김(전가주하원의원)의 축사와 탈북자 김지운 형제가 특별찬양했다.

〈박준호 기자〉

노회통합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김성일 목사

KAPC LA중앙노회-로스앤젤레스노회 통합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 LA 중앙노회(노회장 오세훈 목사)와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김성일 목사)가 지난 6월 25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렸다.

오전 10시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에서 열린 통합 노회 명칭은 로스앤젤레스노회로 칭하고 김성일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선임했다.

한일철 목사(총회 회록서기)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관중 목사(총회 회록서기) 기도 후 총회장 양수철 목사가 설교했으며 오세훈 목사가 축도했다.

양 목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3)의 제목으로 "오늘 성령 안에서 두 노회가 하나 됨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며 "분열은 가장 큰 죄이고 분열은 예수그리스도를 다시 못박는 것이다. 형제가 연합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이슬처럼 은밀히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양수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는 총회 서기 한인철 목사의 노회원 호명이 있은 후, 노회통합 경과를 보고를 통해 "본 통합은 지난 KAPC 총회에 두 노회 노회장이 합병통합청원서를 제출해 통과됨으로 통합감사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보고한 뒤 총회장 양수철 목사는 두 노회가 로스엔젤레스노회로 하나가 됐음을 선포했다.

이날 전 총회장 김상덕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나로 섬기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겨주심에 감사한다. 총회, 노회는 교회다. 목사 장로로 구성된 특별한 교회다. 목사는 특별한 콜링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노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한다. 특별히 오늘 하나 된 로스앤젤레스노회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노회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한 뒤 양수철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로스앤젤레스노회 통합 교회 소속 목사는 42명이며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김성일 목사 △부노회장 성기선 목사 △서기 이대용 목사 △부서기 조정기 목사 △회록서기 양인수 목사 △회록부서기 최종연 목사 △회계 김현인 목사 △부회계 김강인 목사.

〈이성자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LA총영사관 공동주최로 마음힐링세미나에서 안현미 한인가정상담소 심리상담부 매니저가 강의하고 있다

'힘들어도 괜찮아!' 주제로

한인가정상담소-LA총영사관 공동 마음힐링 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와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공동으로 한인들을 위한 '마음 힐링 강연회'를 '힘들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22일 오전 10시 LA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안현미 한인가정상담소 심리상담부 매니저, 샘리 상담사, 그리고 박제인 상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와 '주변에 힘들어 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우울함과 절망감을 벗어던지는 법, 각 연령별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물론,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길까지 아우르며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강연자로 나선 한인가정상담소 안현미 심리상담부 매니저는 "극단적 선택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롱비치에서 참석한 김주연(46)씨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큰 위로 받았다"면서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의 김동희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는 "한인커뮤니티에 필요한 주제로 열려서 반가웠다"며 "주어진 시간이 짧아 보다 많은 내용들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 준비와 진행을 맡은 LA 총영사관의 김보준 영사는 "참석자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아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물이 많이 나왔다"면서 "1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행사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세크라멘토지부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소망소사이어티 세크라멘토 지부개소 및 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지난 6월 14일 새크라멘토 지부 발족식을 가졌다.

30여명의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은 만찬 후 최경철 사무총장과 남궁수진 간사 사회로, 소망소사이어티 홍보영상, 소망의 노래 합창, 유분자 이사장의 인사말, 김미혜 사무국장의 소망소사이어티 소개, 지부 승인 및 지부장 임명장 수여, 장희숙 지부장의 지부 임원 소개, 준비위원 김옥기 총무와 허일무 고문의 인사 그리고 이윤구 한인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 참석자를 소개하고 소망소사이어티에 대한 기대, 인연들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소망소사이어티 새크라멘토 지부는 장희숙 지부장을 필두로 그레이스김 부지부장, 김옥기 총무, 신난영 회계가 일하며 허일무, 변청광 고문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장희숙, 김옥기, 허일무, 정이선 씨가 평생회원으로 가입해 소망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학교와 한인회에서는 후원금을 전달해줬다.

한편 6월 15일에는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에서 개최된 경로부 효도잔치에서 지부 개소식 기념 소망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말씀이 살아나서 자신을 일으키라"

목회자초청 설교세미나, 강사 채동선 전도사

총신대학교남가주동문회, 남가주목사회 등이 후원해 열린 목회자초청 설교세미나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로텍스 호텔 세미나 룸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채동선 전도사(마가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섰다. 채 전도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방황하던 시절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목회자로서 설교단에 서게 된 이유를 말했다.

채 전도사는 "설교 메커니즘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도면밀하게 바라보는 것"이라며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병자를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나서 나 자신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채동선 전도사의 강의가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 고마웠다는 반응과, 설교세미나인데 설교에 대해 나누는 것이 아닌 채동선 전도사의 설교를 들은 거 같아 주최 측이 주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목회자초청 세미나인데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참석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어보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준호 기자〉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서 채동선 전도사가 강의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오렌지중앙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오렌지중앙교회(13522 Goldenwest St., Westminster, CA) 유원선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30일(주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714)891-2370

동페라 예술단 공연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동페라(동화+오페아)예술단'이 29일(토) 오후 6시 LA한국문화교육원에서 재미 대한서남부장애인체육회 주최로 공연을 갖는다. 이날 공연은 디스어빌리티오케스트라(대표 박현주 전도사)가 찬조 출연한다.

▲문의: (510)915-4278

피종진 목사 초청 부흥성회

주님의사랑교회(서사라 목사, 216 E 31st ST, LA)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피종진 목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이며 일정은 6월 30일(주일)부터 7월 3일(수)까지이며 시간은 저녁 7시.

▲문의: (323)897-5751, (213)618-0614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 강연회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회장 고영준 목사)는 '철학과 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무료강연회를 30일(주일) 오후 4시 글러벌비전교회(300 W Olympic Blvd, LA)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의 강사는 강성률장로(광주교육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나선다.

▲문의: (714)883-1328

딤임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으로 올해 설립 44년을 맞이하는 나성서남교회는 2019년말 담암목사 은퇴로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KPCA 소속이나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로 본 교단이 인정하는 정교대학 신학대학원(M.Div)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은 이중언어(한/영)가 가능한 목회경력이 5년 이상(부목사 또는 교육/행정 경력 포함)인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한/영 1부(최근사진첨부, 본인 및 가족) △졸업증명서(학부 및 신학대학원 M.Div)와 목사안수증명서 각 1부 △본인/가족소개서, 신앙고백과 목회비전서 △출석교회 주보와 2회분 설교 동영상 △추천서 2부(목사 2부)를 7월 31일(수)까지 제출(우편: Korean Church of SouthWest LA, P.O.Box 6990 Torrance, CA 90504, 온라인: chungbing19@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 문의: (310)719-7193

국제총회 연합청년부 찬양집회

예장합동국제총회(총회장 신승훈 목사) 연합청년부 찬양집회가 7월 5일(금) 오후 8시와 6일(토)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eunsang.lee@gcjc.org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박사과정 모집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BTS 총장 제이슨 엘런 박사) 한국부(학장 박성진 박사)는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MBTS는 미국고등교육위원회(HLC) 및 신학교협의회(ATS) 정회원 학교이며 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중 하나로 규모로는 북미 3위에 해당되는 학교다. MBTS는 한국부 재학생만 600여명으로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 학위과정은 △성경사역학 Ph.D(52학점) △목회학박사-선교목회학(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D. Min, in Counseling)(30학점) △교육목회학(D.Ed.Min.)(38학점).

학위과정의 목적은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의 교회와 사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양성한다. 둘째,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는 목회자의 필요에 부응한다. 이에 대한 세부과목 등 자세한 정보는 미드웨스턴 한국부 홈페이지(www.mbts.edu/ks)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ATS 인가 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의 코스워크만 하고 아직 논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하면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들을 제공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 박사원은 매년 15명 안팎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논문 진행과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검증된 지도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MBTS 한국부 최새롬 사모(ks@mbts.edu)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한국부〉

신학대, 신입생 정원 미달로 골머리

정원 못 채우는 곳 25%…만학도 뽑아 연명

대전 대덕구 대전신학대의 2018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31.7%에 그쳤다. 60명 정원에 19명이 입학했다. 정원 미달은 등록금 수입 감소와 정부 지원금 축소로 이어진다.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위기에 빠진 신학대는 한두 곳이 아니다. 적지 않은 학교가 신입생 정원 미달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40개 회원대학 중 10곳의 신학대가 지난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3개 대학은 대학기관인증평가의 선결 조건인 충원율 95%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원율은 한 번 떨어지면 반등이 어렵다. 실제로 충원율이 반등한 곳은 영남신학대 한 곳뿐이다.

신학대 충원율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자원은 41만960명이다. 2023년이 되면 39만8157명으로 줄어든다. 이를 지난해 대학 신입생 정원과 비교하면 해당 기간 미충원 인원은 8만6258명과 9만9061명이 된다.

광주 호남신학대 A교수는 23일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충원율도 떨어지고, 좋은 학생을 뽑지 못하다 보니 한국교회의 장래도 어둡다"면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대학들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급한 불은 '만학도 전형'으로 끄고 있다. 만학도 전형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기회균등 입시제도다. 대학들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선발하기 때문에 문턱이 낮다. 신학대들은 면접만으로 만학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보통 40대 이상을 만학도로 분류한다.

대전 유성구 침례신학대 B교수는 "지방 신학대들 중엔 많게는 30% 이상의 재학생이 만학도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정원 미달을 메꾸는 방법으로 활용되다 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한 신학대 C교수는 "만학도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 입시 사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발 뒤에도 이들의 입맛에 맞춰 학사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생업이 있다는 이유로 예배 출석을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신입생은 뽑았을지 몰라도 지도자 양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안타까워했다.

문제는 신학대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부산장신대 D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목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한 것도 충원율 저하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면서 "학교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문을 닫는 신학대들이 곧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다양성' 포장 동성애조례 결국 철회

부천시의회, 부기총 등 교계 거센 반발에...

오는 29일 대구 퀴어행사가 대구 중앙로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개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행사 허가권자인 대구중부경찰서가 지난 5월 25일 퀴어행사조직위원장에게 직접 교육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는 24일 "2016년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행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1인 시위와 반대서명 캠페인이 진행됐다"면서 "특히 지난해는 9만여명의 반대서명을 받고 21만9000여명이 동참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받았음에도 올해 대구 중부경찰서와 중구청은 동성애자들에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용 허가라는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이 지난 5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모아놓고 가짜 인권교육을 진행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런 교육 때문에 대구 경찰이 대중교통까지 틀어막으면서 동성 간 성행위자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20여 차례 집회가 열린 적이 있으므로 퀴어행사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행사에서 위법한 일들이 벌어지면 체증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당사자인 퀴어행사조직위원장에게 교육받은 것이 경찰의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퀴어행사 때 동원되는 경찰관 위주로 받았다"면서 "편향성 여부는 답변을 못 하겠고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과 대구퀴어반대책본부, 대구경북CE협의회 등은 24일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구 경찰의 편향적 행정을 비판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제공

이날 대구경북CE협의회 등 21개 단체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구 경찰의 편향성을 규탄했다.

내 외국인 친구가 사이비에 빠졌을 때...

바른미디어, 외국어로 주요 사이비 설명하는 자료집 배포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등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 크리스천들은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신천지는 세계 40여개국에 진출해 성도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단·사이비 전문 매체인 바른미디어(조믿음 대표)는 외국 크리스천을 위한 이단·사이비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바른미디어는 신천지를 포함해 JMS, 구원파(박옥수),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집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로 번역해 온라인 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번역 자료집이 필요한 이유로 '선교'를 꼽았다. 조 대표는 "선교사들은 현지의 문화나 언어보다는 한국에서 진출한 이단과 사이비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도 충분치 않아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통일, 평화적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교총, 기자간담회 열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박종철 이승희 김성복 목사)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통일이 적대적 전쟁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통일연대 이사장인 박종화 목사는 "불변의 도식처럼 회자되고 있는 북한식의 '적화통일'도, 남한식의 '흡수통일'도 현실적으로 전쟁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6·25전쟁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한 우리는 전쟁이 공멸이지 일방적 승리가 아님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통일의 목표와 목적도 평화이지만, 통일 방식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면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일임을 고백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허문영 평화한국 상임대표도 "2020년은 6·25 동족상잔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우리가 추구할 통일은 문화와 사회가 먼저 통일되고 그다음은 경제, 다음은 정치가 통일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평화로운 복음통일을 기대하며 평화를 이 땅에 심고 가꾸는 샬롬의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기도문을 발표했다.

"교계 일부 막말 때문에 이단 공격 받아요"

'극단적 발언' 에 반증사역자 · 회심자들 속앓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교회의 대(對)이단 사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기총이 부패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며 집중 공격해 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이번 일을 자신들의 포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단 사역자들과 회심자들은 전 대표회장이 최근 극단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이단·사이비가 주장하는 '한국교회의 부패상'과 연결돼 이단 반증(反證)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A씨(27·여)는 최근 뉴스를 보고 신천지에 빠졌던 과거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A씨는 "신천지에서는 한기총이 부패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면서 "물론 지금은 신천지의 논리에 오류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말' 논란을 빚어온 전 대표회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한국교회 대표'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과거가 생각나 아찔했다"고 털어놨다.

이단과 사이비종교의 교리를 반증해 회심을 이끌어내는 사역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증사역자 B씨는 "회심교육 대상자와 뉴스를 보다가 전 대표회장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보고 대상자가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며 "한기총에 변승우(사랑하는교회)씨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목회자나 교단이 가입한 사실 등을 말해줘도 막무가내"라며 한숨을 쉬었다. B씨가 상담하던 대상자는 최근 반증교육을 잠시 쉬기로 결정했다.

반증사역자 C씨는 "지역 신천지 지교회들에서 최근 전 대표회장의 발언을 골라 '한기총의 실상'이라며 교육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면서 "한기총의 이름이 가져오는 상징성 때문에 행보를 신중히 해야 했는데, 전 대표회장의 이번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성도들이 숙지하지 못할 수 있는 교단과 연합기관 관련 이슈에 대해 목회자들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성도들이 교단·연합기관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알 필요는 없지만, 사회를 뒤흔든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 더 공세적인 행보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탁 교수는 "이단과 사이비는 한국교회의 문제들과 특정 정치논리를 극대화해 한국교회를 공격한다"며 "이에 대해 공개토론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들의 논리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교주와 공개토론" 답변 요청

천기총, 내달 15일까지...신천지총회 찾아가 촉구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천기총·회장 임종원 목사)가 경기도 과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총회에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신천지천안교회가 '성경을 보고 토론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며 공개토론을 거부한 지 한 달 만이다.

천기총은 지난 20일 과천 신천지 총회에 교주 이씨와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22일에는 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소속 목회자들이 직접 총회를 방문해 수신 여부를 확인했다.

천기총은 내용증명에서 "신천지천안교회가 공개토론을 성사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2차례 협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번에도 토론 제의를 피한다면 더 이상 '이긴자' '보혜사' 등의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기총은 신천지 교주 이씨의 주장이 허황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제를 '이만희씨는 이긴자인가' '신천지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천기총 목회자 10여명은 이날 신천지 총회를 방문해 내용증명 수신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하늘문화교육연구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에서 나온 신천지 관계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며 수신 확인을 거부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천지는 21일 오전 내용증명을 수신했다.

유영권 천기총 이단대책위원장은 신천지 총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가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신천지천안교회 측에서 내놓은 '이씨가 없는 곳에서 이씨에 대해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달 15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제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도/칼/럼

성령 받으면 기도부터 달라진다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달라졌다. 삶의 모습, 영성, 복음 사역 등 180도 바뀌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의 제자들이 아니었다.

전에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시기하고 다투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다. 기도해야 할 때 피곤하다고 잠을 잤다. 쉽게 화를 내고 감정조절이 안 되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빵이 없을 때는 걱정만 하였다. 보리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투덜거렸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였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던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였다.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서도 의기소침하여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갔다. 이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변화되었는가? 성령을 받은 이후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하였다. 권능을 받았다. 위로부터 능력의 옷이 입혀질 때 강력한 증인이 되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난 곳 방언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절기를 지키러 16개국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놀랐다. 새 술에 취한 줄 알았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다. 삼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였다. 전에는 수많은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다.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전파를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부터 달라진다. 성령 받았는가? 기도부터 달라지는 것이 그 증거이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bible66@gmail.com

안산동산고,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 · 학부모회 "미션스쿨 건학이념 반영 안돼 부당"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학교와 관계자들이 평가의 형평성과 절차적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션스쿨인 안산동산고에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산동산고 학부모회(회장 인남희)는 24일 오전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시위를 열고 "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에 분개한다"고 규탄했다. 인남희 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주의처분은 0.3-0.5점, 경고처분에는 0.5-0.7점의 감점을 부과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1, 2점을 감점해 동일한 평가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2-4배 많은 감점을 받게 된다"며 "경기도만 다른 나라 교육 현장으로 분류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인 이번 평가에서 62.02점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공통지표에 의한 5개 영역(88점)과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교육청 역점사업 12점, 감사 등 지적 사례-12점)으로 이뤄진다. 교육청 역점사업 부문에서 5.03점을 받았지만,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 최대치인 12점 감점을 받으면서 최종 점수가 뚝 떨어졌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평가지표 공지 시점부터 평가 방식까지 비합리적인 것투성이"라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난 1월 3일 처음 학교에 평가지표를 전달했는데, 방학식 날이었다"며 "변동 폭이 많은 평가지표를 학기가 종료된 시점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는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영역이 12점이었는데 이번에는 8점으로 줄었고 그중 4점은 교육청 재량평가로 넘어갔다"며 "학교 운영상 강점은 평가항목에서 줄이고 교육부 재량을 늘려 대량 감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건학이념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인 회장은 "안산동산고는 안산 시민과 학교를 방문하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명문대 입학이 목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삶의 본질을 가르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는데 자료 좀 보고 몇 시간 면담한 것만 갖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안산동산고 학부모회는 '자사고 지정 취소안'이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때까지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매일 5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26일 오전 10시엔 학부모 졸업생 동문 안산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

선교의 창 (124)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선교적 시각에서 본 베트남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경제, 문화, 스포츠, 관광, 국제결혼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Korean Food Service News 신문 통계에 의하면 1992년 12월 22일 수교 이래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20만 명에 달하며 그 곳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과 업체들이 4,800개나 된다고 한다. 베트남에 부는 한국의 영향은 어떠한가? K-Pop, K-drama, K-Food, K-Sports, K-language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 그 증거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주한 베트남인도 약 20만 명이나 된다. 이는 외국인 서열이 중국인 다음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역사, 사회의 분야에서 보면 동질성이 원인일 것이다. 나아가 베트남은 한국을 발전 모델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4대 열강의 포위 속에서 새로운 탈출구로 신 남방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두 나라가 선린 우방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협력해 나간다는 것은 크나큰 힘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베트남을 진정으로 돕는 다면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는 세계 한인교회의 몫이다.

돛단배는 순풍을 이용해야 한다.
선교도 시대의 바람을 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베트남을 향한 열풍에 복음의 닻을 올려야 한다.

1. 베트남의 기독교 선교 역사

베트남은 BC 690년 반랑국을 건국하였고 BC 200년에 베트남어를 쓰는 남비엣이라는 독립 왕국을 세워 여러 왕조시대를 거쳐 왔다. 이 나라는 중국의 잦은 침입과 프랑스 식민시대와 미국과의 10년 전쟁 등 외세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다.

최초의 기독교 선교는 16세기 중엽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신교의 본격적인 선교활동은 1911년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에 의해서이다. 베트남 복음 성회는 이들 C&MA에 의해 1927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하나의 교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1975년 공산화가 될 무렵에는 약 10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 1990년 말에 베트남 개신교 성도는 약 30만 명에 이른다. 현재는 1%인 약98만 명 정도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핍박 가운데서도 산지의 소수민족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

2. 베트남의 종교 현황과 정부 정책

베트남은 대승불교권 국가이다. 52%로 불교의 나라라고 할 만큼 많은 절이 많다. 남부 지방에선 불교의 아류인 호아하오교와 카오다이교가 5.2%이며 유교 사당도 볼 수 있다. 로마가톨릭 교도는 9%, 개신교도는 1%이다. 이 밖에도 소수종교인 힌두교는 베트남 남부 해안지대의 참족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으며 무신론자들과 함께 기타 종교로 30%를 차지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는 통일이후 종교생활을 기본적으로 억제해 왔다. 1992년 개정된 헌법 제70조에 의하면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큰 의미가 없다. 당국의 기본방침으로 "종교를 옹호함으로서 국법을 위반하지 말 것. 종교집단은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연수허가를 받기 전에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입증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운동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일 경우 선교 상의 많은 제약사항들이 있음을 숙지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3. 베트남을 주력 선교해야 할 이유

세계 한인교회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하는가? 오대양 육대륙이 아니다.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곳이라도 전략적으로 힘을 몰아줄 필요가 있다. 그 몇 나라 중 하나를 치라면 바로 베트남이다.

이유인즉, 첫째는 영혼구원이다. 1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 중 개신교도는 불과 1% 정도이다. 둘째는 잠재력이 크다. 비옥한 토지, 경제 성장, 수많은 청년들, 강한 민족성 등이다. 셋째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나라는 Window 10/40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교권인 인도차이나 반도에 자리하고 있다. 넷째는 한국과 동질성이 크다. 오른쪽에 바다를 둔 길쭉한 국토의 모양,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 등이다. 다섯째는 베트남전으로 인한 얽힌 사연이 있다. 당시 한국은 가해국으로 저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4. 베트남 선교의 장벽

베트남 선교의 첫 관문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언어의 깊이는 문화 이해와 비례한다. 베트남 언어는 6개 성조로 인해 외국인이 습득하기에 쉽지 않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언어를 소홀히 하고 곧장 가시적인 사역을 선호한다.

또 하나의 장벽은 저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불교와 조상숭배 사상이다. 도처에 사당이 있고 돌아가신 선조들을 향한 제단이 있다. 현장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베트남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어려운 이유는 국가정책 때문이 아닌 조상숭배가 주 원인이라고 말한다. 기독교가 저들의 전통제례를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이 밖에 현실적인 문제로서 종교 활동에 대한 제제가 크다는 것이다. 모든 선교활동은 보고하게 돼있으며 정부통제 하에 있다.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과 국가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OMF East Asia 필드디렉터인 이안(Ian) 선교사는 베트남을 아는 것이 선교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5. 베트남 선교의 방향

가능성의 땅 기대가 있는 땅! 베트남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첫째 베트남 인들에게는 호치민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백성을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백성과 함께 하며 아픔을 나누는 지도자 사상을 말한다. 선교사랍시고 거들먹거리며 힘으로 밀어 붙이는 제국주의적 발상을 금물이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자들을 우선으로 섬기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베트남 사회가 가족 중심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고구마줄기와 같다. 수평적으로 낯선 이들을 무리하게 엮기보다 혈연과 지연 중심으로 수직적인 사역이 효과적이다. 셋째 장차 베트남 교회를 짊어질 차세대 지도자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베트남 교회를 이끄는 목사들은 대부분이 연로하며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다.

넷째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베트남인들 중에서 헌신된 자를 차출하여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자기 조국으로 재 파송하는 일이다. 한국에 20만 미국에 150만 명의 베트남인이 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맺음 말

베트남은 어떤 곳인가?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주님께서 그 땅과 백성들을 세계 한인교회에게 붙이셨는지도 모른다. 싸움에서 때린 자는 과거를 쉽게 잊지만 얻어맞은 자는 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은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 이제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관건은 서로의 왕래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여러 문제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조선족과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실패가 베트남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첨병의 역할은 한인교회의 몫이다. 우리를 통해 베트남에 복음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저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인도차이나반도와 어둠의 장막인 Window 10/40에 선교적 나라로 들림 받기를 기대한다.

jrsong007@hanmail.net

드라마 구약 (12)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1, 2, 3차 포로귀환 통해 성전재건, 말씀부흥, 성벽재건
느헤미야와 에스라 함께 사회개혁운동 전개, 회복케 함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라에 기록된 1차, 2차 포로귀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끄는 약 5만명의 1차 포로귀환단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시켜갔고, 또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된 성전 건축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다시 재개되어 마침내 BC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약 30년 정도가 지난 후, 바벨론 땅에서는 하만에 의한 유대인 말살 음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귀환단이 돌아온 후 약 80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단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성경공부 부흥운동과 역사를 통한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3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온 지 약 13년 후 BC444년 즈음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귀환단은 성전을 건축했고, 2차 포로귀환단은 성경공부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며,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국방에 필이 꽂힌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에스라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왕궁에서 근무하던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2차 포로귀환단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고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에스라가 유다 땅에서 성경공부 부흥운동을 한참 전개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 땅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장부터 시작됩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성벽재건에 필요한 물자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 물론 나라 이름은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바벨론 제국이 있던 땅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유다 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할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허리에 칼을 차고 적들을 경계하면서 건축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 앞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큰 부흥회를 합니다. 그 내용이 8장입니다.

이때 초청한 부흥강사는 에스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면서, 이 당시 포로귀환 공동체의 영적인 최고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포로귀환 공동체를 '에스라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흥회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말씀의 동역을 위해서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당시에 그토록 레위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는 말씀사경회 형식의 부흥회였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 부흥의 가장 큰 증상은 회개입니다. 9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회개운동은 사회개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 후에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개운동은 이방인과 결별하는 사회개혁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3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을 고발합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 장면은 에스라 9장과 10장에 기록된 장면과 일치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역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회를 엽니다. 그 부흥회는 회개운동과 사회개혁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 말씀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며 느헤미야는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유다 멸망의 역사와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회복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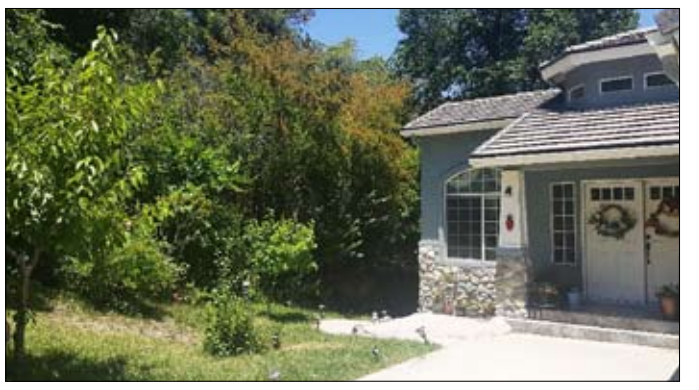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귀족들이 잡혀갔고, 2차 포로는 에스겔을 포함한 여호야긴과 약 1만명의 사람들이 잡혀갔으며, 3차 포로는 시드기야가 잡혀가면서 남방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시켜 주셨고, 말씀 부흥을 일으켜 주셨고, 성벽까지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목록인 말라기를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은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라기를 통해서 포로귀환 이후 유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광야 한가운데서 쉼을 얻는다.... 소망광야쉼터를 찾아서

"지친 몸과 영혼에 안식을 드려요"



소망숲속쉼터

LA에서 한시 간 남짓 떨어진 곳에 지친 몸과 영혼을 힐링 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됐다.

오세훈(세계소망교회 담임) 목사는 1년 전 시애라 지역과 랭커스터 지역에 별장을 매입하고 누구든 와서 쉬고 갈수 있는 수양관으로 확대했다.

1981년 이민자의 삶을 살기 위해 미국으로 왔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오세훈 목사. 그는 이민목회를 통해 성도도 목회자도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감을 체험했다. 아직 은퇴의 날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오 목사는 은퇴 후를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 선교사도 목사도 성도도 더 나아가 성도가 아닌 일반인에게까지도 쉼을 선사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고 결국 현재의 쉼터들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자는 지난 19일 랭커스터 소재 소망광야 쉼터를 찾았다. 쉼터를 향해 1시간여를 달리는 동안 마치 광야를 지나는 듯 했고 쉼터에 도착해 길목에 걸려있는 소망광야쉼터의 팻말을 보는 순간 오아시스를 만나는 듯 반가움이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태양에 적당히 그을린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오 목사는 쉼터의 곳곳으로 안내했다.

소망광야쉼터 입구. 원내는 오세훈 목사.

소그룹모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팔각정

끝없이 펼쳐지는 들판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주택과 새로 건립한 팔각정, 그리고 최대 100명 정도 숙식이 가능하게 지어진 침실과 교회를 보며 오 목사가 '소망광야쉼터'라고 명명한 이유를 알 듯 했다. 끝없는 들판 속에 자리 잡은 쉼터,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쉼을 얻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 했다.

쉼터 주변에는 수백그루의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특히 크고 작은 뽕나무들은 서로 앞다투듯 달콤한 오디를 주렁주렁 맺고 있었다.

숲속을 지나 닿은 본채, 넓은 여러 곳의 홀과 부엌, 4개의 방으로 구성된 본채는 20여명의 단촐 한 모임으로 적합해 보였다. 각 방마다 킹 사이즈의 침대가 마련돼 있었다. 넓은 부엌이며 홀을 돌아보니 쉼도 갖고 기도하기에 손색없는 장소였다.

뽕나무밥 일미...수련회나 기도회로 적합

본채를 나서니 새롭게 단장된 팔각정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 역시 예배와 모임을 갖기에 적격이었다. 조금 더 걷다보니 새로 건축된 숙소와 교회당이 있었다. 입구에는 카페를 마련했다. 시원한 숲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도 나누고 자연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기엔 부족함이 없을 듯 했다.

교회당 옆면에는 숙소로 이어졌다. 방마다 에어컨 시설이 돼있어 더위도 침범할 수 없게 했다. 또 큰 룸에는 최신식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온 가족이 찬양도 부르며 가곡도 즐길 수 있도록 초대형 화면으로 준비했다고 말한다.

쉼터를 돌아보고 다시 본채로 들어서니 오 사모가 맛난 점심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뽕나무 밥과 뽕나무 쌈, 그리고 LA갈비까지... 뽕나무의 효능을 아느냐고 반문하며 뽕나무 설명도 이어갔다. 뽕나무는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까지 무엇 하나 버릴게 없는 하늘이 주신 아주 착한 나무란다. 독성이 없어 복용량에도 제한이 없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라고.

뽕나무 잎은 상엽이라고 하여 발열, 두통, 해수, 수종, 구갈 등을 치료하는데 뽕잎에는 칼슘과 철분을 비롯 약 50여 종의 미량원소들이 함유돼 있고 녹차와 미량원소의 양을 비교해도 비타민 A, C를 제외하고는 다량의 미네랄이 녹차보다 훌륭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영양가 덩어리 뽕나무 밥에 양념간장 한술 넣어 비벼먹는 뽕나무밥의 맛도 일색이었다. 시간관계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일어서자 오 목사는 "LA에서 N.15 Hwy를 타고 가다 시애라에서 내리면 '소망숲속쉼터'를 방문할 수 있다"며 숲속쉼터의 소개도 잊지 않았다.

소망숲속쉼터는 광야쉼터에 비해 더 많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소망숲속쉼터'로 이름 했는데 여자들은 오히려 좀 규모는 작지만 숲속쉼터를 더 좋아한다고 귀띔한다.

이 두 쉼터는 모든 한인들에게 오픈된다. 누구든 미리 전화만 주고 예약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수련회나 기도회 장소로도 좋고 특히 선교지에서 헌신하다 안식년을 맞아 LA를 찾는 이들에게도 편안한 쉼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쉼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213)235-769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인/터/뷰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어깨동무장애인선교단)

"이젠 선교지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캄보디아 '어깨동무장애인선교단'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해외 장애인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북미주 지역 교회들을 방문 선교보고를 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현지 한인들을 위한 선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선교에 대한 범위를 넓혀 선교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병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월 25일 뉴욕을 출발해서 애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카고, 위스콘신, 사우스타코다,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 라스베가스, 샌디에이고, LA까지 약 8,500마일을 자동차에서 먹고 자면서 노숙자의 삶과 차숙자의 삶으로 경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선교보고와 함께 모금도 하게 된다. 모아진 후원금은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에 사용된다.

조 선교사부부가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모금을 하게 된 것은 캄보디아 장애인 선교를 시작할 당시로 돌아간다.

뷰티서플라이 비즈니스를 하던 조 선교사 부부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된 후 2010년 4월 20일 캄보디아로 가게 된다. 당시 학교를 세워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학사 선교사역을 하고자 캄보디아로 파송이 됐지만 사역의 방향은 학사사역에서 장애인사역으로 전환됐다. 그 가운데 모 선교기관에서 보내준 휠체어 2컨테이너와 캄보디아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사역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프놈펜에서 부여받은 학사사역을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새빛맹인선교회 회원들과 안요한 목사님이 캄보디아로 단기선교 차 방문하셨어요. 3박4일간 함께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사역을 했었는데 일정을 마치고 안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애인사역을 잘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학사사역을 준비 중이라 안 목사님의 말씀이 매우 불편했었어요."

이후 세브란스병원 의료팀들이 캄보디아 장애인들을 돌봐주기 위해 방문했었는데 그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

"새빛맹인선교회도 그렇고 세브란스병원 의료팀도 그렇고 저보고 장애인사역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 캄보디아에 갔을 땐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온 팀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원두막에서 살아가는데 마치 유기된 짐승 같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울컥했던 적이 많았으며 그들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장애관련 사역팀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라고 하시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7월 31일까지 북미주 순회 선교보고 및 모금

그렇게 조 선교사 부부가 어깨동무장애인선교단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를 사역의 일환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조 선교사는 "모 선교회를 통해 2컨테이너 분량의 휠체어가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현지교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막막해 했다"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관돼있는 휠체어를 수거해 산간벽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게 됐으며 이와 더불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선교사는 캄보디아 장애인 선교의 중요성은 그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동천 선교사는 올해까지 7차례 미주지역을 방문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고 말하고 "세계어깨동무장애인선교단 단장에 KWMC 사무총장 이승종 목사, 이사에 최병수 시카고베델교회 담임목사가 맡았다"면서 "세계어깨동무장애인선교단이 주님을 통해서 먼저 성령 받고, 그 열정을 성령의 불길로 강권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목사로 세우셔서 선교사로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찾아가서 섬김으로 제자 삼는 일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만 바라보고 세계열방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라며 네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했다.

△2019년 제 7차 북미주 자동차 대륙횡단 순회선교보고(3월 25일-7월 31일 128일간) 중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모금 동안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문 지역과 교회와 만나는 모든 분들께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 잘 전해 동참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장애인들과 지구촌 난민국 11억의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 △캄보디아 장애인들이 정부혜택을 받도록, 장애재활병원과 장애인교회를 세우도록.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3
33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0512, Fax.(215)945-2095
150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인):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유, 유년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8
4040 N.E. 109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978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t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0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85
3476 Arizona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98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수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535-1842(H), (254)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9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b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59-8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o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930, Fax.(215)927-09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tucp.org

영어로 보는 성경 (24)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SONG OF SONGS 8:6,7

(2:11) Yet when I surveyed all that my hands had done and what I had toiled to achieve, everything wa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nothing was gained under the sun.

(12:13)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NIV 1984)

▣ WORD & IDIOM

* place A over ~: A를 ~에 두다 * seal: 인장, 도장 * as ~ as …: … 만큼 ~ 한 * jealousy: 시기, 질투 * unyielding: 단호한 * grave: 무덤 * blazing: 맹렬한 * flame: 불길, 불꽃 * quench: (불을)끄다 * sweep ~ away: ~를 완전히 없애다 * were to + 동사원형: 불확실한(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에 대한 가정 구문 * utterly: 완전히, 아주, 전혀 * scorn: 깔보다, 업신여기다

▣ GRAMMAR

6) Place me like a seal over your heart, like a seal on your arm;
나를 도장같이 너의 마음에 두라 도장같이 너의 팔에 두라
for love is as strong as death,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its jealousy unyielding as the grave.
사랑의 투기는 음부만큼 잔혹하기 때문이다 ⇒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그 질투는 음부만큼 잔혹하니 나를 도장 같이 네 마음에 두며, 도장처럼 네 팔에 새겨라.

* 이 문장은 명령형이다. 〈like a seal on your arm;〉 앞에 Place me가 생략되었다. 다시 말하지 않아도 뜻이 이해되는 경우, 생략하거나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우리말도 그렇기는 하지만-특별히 영어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다.

It burns like blazing fire, like a mighty flame.
사랑은 맹렬한 불같이 타오른다, ~ 처럼 힘센 불꽃 ⇒ 사랑은 맹렬한 불같이 타오르고, 강력한 불꽃처럼 타오른다.

* 이 문장에서 It는 love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like a mighty flame〉 전에 It burns가 생략되었다. 〈It burns like blazing fire〉 완전한 문장이지만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고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7) Many waters cannot quench love; rivers cannot sweep it away.
많은 물이(바다가) 사랑을 끌 수가 없다 (그리고) 강물이 그것(사랑)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
If one were to give all the wealth of one's house for love,
만약 누군가가 준다고 해도 자신의 집의 모든 재산을 사랑을 위하여
it would be utterly scorned.
그것은 아주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 바다가 사랑을 끌 수가 없고, 강물이 사랑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 만약 누군가가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집의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 물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복수형을 쓸 수 없지만 이 문장에서와 같이 복수형(waters, rivers)을 취함으로 많은 물의 바다와 강을 표현하기도 한다. * one은 총칭대명사로 여기서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 문장은 가정법과거형(If + S(1) + were ~ S(2) + could + V ~) 문장이다. 〈S(1)가 ~ 이라면 S(2)가 ~ 할 것이다〉의 의미이다.

▣ STUDY & THOUGH

■ 구약시대에 인과 도장은 한 사람의 권세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다. 이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 6절 말씀은 결혼에 의해 연합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 한편 이처럼 신랑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소망하는 신부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며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모범이기도 하다.

■ 우리는 이미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굴복당하지 않는(7절) 열정적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우리위해 이루신 주님의 구속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 Take the time to truly know God's lov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왕상15:1-3)

오늘은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얌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받습니다. 부모의 나쁜 그대로 본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부모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주목할 것은 아비얌이 부모의 나쁜 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의지하며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할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왕상15:3-4)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형통함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아비얌의 증조부인 다윗 때문에 지금 증손자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비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범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도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비얌에게 등불이 돼주시고(형통) 예루살렘을 견고케(삶의 터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얌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해 그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형통케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이 마음에 드셔서 그렇게 자손대대로 축복을 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한분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늘 애쓰는 것입니다.

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왕상15:5-8)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정직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그대로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정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자녀에게 선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언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목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왕상5:9-11)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왕은 아버지 아비얌이 왕에서 짧게 물러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41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사왕은 조부 조모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보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아사왕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 불순종과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도 아사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금 그 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왕상15:12-13)

본문은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왕을 닮은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버릴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아사왕은 먼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쫓아버리고 없애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엡4:22-24). 또한 아사왕은 혈육의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할 때 폐해 버렸습니다. 모친 마아가는 할머니를 말합니다. 아사왕이 어린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니까 할머니가 섭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아사왕은 할머니 태후마마를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불효자식이 없고 이런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왕상15:14)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아사왕도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산당까지 완전히 부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은 결국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됐다가 예언된 대로 요시야왕 때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은 평생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단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나의 사정에 따라 바뀌지 않고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성결한 삶!"
Sanctified life!
(겔 37:23 Ezekiel 37:23)
강사 정 연 철 목사
Rev. Chung, Yun Cheul
- 삼양교회 담임목사(개척38년)
- 합동측 기독신문 이사장
- 교회갱신 협의회 상임회장
- 한빛국제학교 이사장
- 필리핀베데스다병원 이사장
- 저서 :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창세기로 떠나는 삶의 여행'
'부르신 곳에서' 외 다수
할렐루야 2019
대뉴욕 복음화 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7월 12일(금)~13일(토) 7:30 PM
7월 14일(주일) 5:30 PM
프라미스 교회 (담임목사 허연행) Promise Church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718-321-7800)
| 대회장 : 정순원 목사(빛과 소금교회 담임)
| 부회장 : 양민석 목사 김주열 장로
| 이사장 : 손성대 장로
| 준비위원장 : 김재권 목사
연락처
| 총무 : 이은수 목사
| 서기 : 이창종 목사 917)399-6754
| 교협 : 718)279-1414
목회자 세미나
일시 : 7월 13일(토) 10:30~12:30 AM
장소 : 프라미스교회(담임목사 허연행)
강사 : 이용걸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목사)
어린이 복음화대회
일시 : 7월12일(금)~7월14일(주)
장소 : 프라미스 교회
(담임목사 허연행)
청소년 복음화대회
일시 : 10월 18일(금)~19일(토)
장소 : 뉴욕신광 교회
(담임 목사 강주호)
차량운행안내
출발시간 7월 12일(금), 13일(토) 오후 6시부터 20분간격으로 운행
7월 14일(주일) 오후 4시부터 20분간격으로 운행
출발장소 1. 후러싱 공용주차장 산수갑산 앞
2. 노던 150가 한양마트 앞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st Ave.Little Neck. NY 11362 TEL. 718)279-1414 / E-mail: nyckcg@gmail.com / www.nyckcg.org